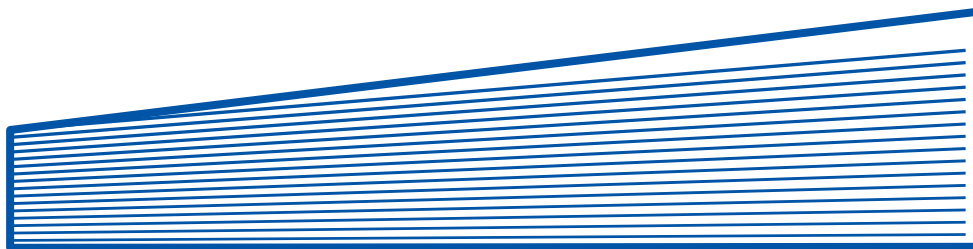


부산 출판사 신간도서

부산에서 만든 책 들여다보기





목차

부산에서 만든 알토란같은 책들	6
글이	8
도서출판 너나드리	10
도서출판 신생	13
도서출판 전망	17
도서출판 한국인	28
도서출판 해성	30
도서출판 3	35
두두	39
물음책방	41
블릭	43
빨간집	44
산지니	46
소요-You	58
시와사상사	60
작가마을	62
책퍼냄열린시	72
청옥문학사	77
한국편의증진연구원	79
해피북미디어	81
호밀밭	83
21세기 여성	94
Liminosity	95
분야별 책 찾기	96
부산문화재단 출판시리즈	103

부산에서 만든 알토란같은 책들

선정 도서는 총 22개 출판사 155종이었습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디지털문화, 저출산과 독서인구 감소 등 출판시장은 갈수록 가시밭길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열정을 갖고 꾸준히 좋은 책을 만들어내는 지역출판사를 만나고, 그들이 만든 알토란같은 책을 살펴보는 일은 반갑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선정하는 일이었지만 부산지역만의 특색 있는 책들과 부산의 출판사들이 담고자하는 출판정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선정위원들이 정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판사의 기획의도가 뚜렷한 책, 작가의 집필의도가 선명하게 담긴 책을 우선하여 소개키로 했습니다. 동인지, 정기간행물, 잡지, 학습교재, 전년도 소개책자에 실린 도서 등은 제외하기로 하고 같은 책의 시리즈는 묶어서 소개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출간하거나 한 출판사에서 동일인의 저서가 중복될 경우 책의 내용이 다를지라도 대표서적 1권을 선정하는 것도 원칙으로 했습니다. 같은 책을 국문, 영문판으로 낸 것도 국문판 한 권만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제공한 책 소개 글만으로는 도서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키 어려운 부분이 있어 오래 의논을 해야 했습니다. 부산문화의 척도랄 수 있는 부산문화재단에서 소개하는 책인 만큼 추후에는 책을 평가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 지역에서 터 잡아 뿌리내린 출판사와 새롭게 등장한 독립출판사 등 예전에 건뒀 출판사 수도 는 것 같습니다. 생태, 환경, 여성, 인권, 다양성, 철학, 해양, 경제, 인문, 사회, 예술 등 다채로운 분야와 주제. 유아부터 노인세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축수를 열어두고 출간작업을 묵묵히 이어오신 지역 출판사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이 부산의 출판문화를 활짝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어낸 창작자와 작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부산지역출판사와 저자 분들의 결과물이 부산을 넘어 우리나라 구석구석까지, 더 나아가 세계로까지 퍼져나가 많은 독자들과 유쾌하고 진지하게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동화작가 한정기

글이

글이출판은 글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드는 독립출판사입니다. ‘글 쓰는 이’라는 명사로, ‘글이 좋아서, 글이 예뻐서, 글이 고파서’처럼 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의 물성이 가진 아름다움, 창작물의 가치 존중, 인간적인 배려를 우선 가치로 둡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618번길 80
010-7272-8744
greebooks@kakao.com
www.instagram.com/greebooks/

그래봤자 꿀랑 어른

자칭 일종의 어른이라고 칭하는 두 아들, 똥이 똥삼이의 요절복통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에피소드를 읽고 있노라면 시트콤을 보는 듯하다. 흔히 부모도 부모가 처음이라고 말하지만 자식도 자식이 처음이다. 서로가 처음인 관계 속에서 울고 웃고 지지고 볶으며 함께 알아간다. 우리는 어른이기 이전에 모두 아이였다. 남들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며 말하는 순수한 시절. 저자가 두 아들과 나누는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피식, 한 번 웃어보자. 그래봤자 우리는 ‘꿀랑’ 어른이지 않은가.



문학 | 한주형 | 13,500원 | 256페이지 | 2020.5.5.



하지만, 그렇다 해도, 말하자면 도저히

타자의 번덕과 기분 때문에 좌절하는 삶을 접속사로 표현한 제목이 독특한 단편소설집.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좌절하는 이웃들의 숨겨 현대인의 우울한 초상을 물기 없이 담백하게 담아내고 있다. 쿨한 척, 태연한 척 살아가지만 일상적 비극 앞에서 좌절하는 소설 속 인물들은 ‘우연’이라는 생의 이해할 수 없는 법칙 속에서 부질없는 ‘잘난 척’으로 촌스러움을 자초하기도 하고, 괜한 허영으로 주변의 비웃음을 산다. 상처 안에서 새로운 상처를 기워가며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이웃들이, 어쩌면 나 자신일지도 모른다.

문학 | 우연 | 12,000원 | 280페이지 | 2020.10.2.

낙락한 생

글이출판의 첫 번째 시선. 넉넉함(낙)과 즐거움(락)이 가득한 시들로 채웠다. 네 개의 장은 각각 세상을 바라보는 혜안, 도반을 사랑하는 마음, 자연에 스미는 아름다움, 설렘으로 점철된 순간들을 담았다.



문학 | 구연미 | 10,000원 | 168페이지 | 2021.4.26.

도서출판 너나드리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381번길 9
051-200-8790
simple1@hanmail.net
www.dahana.co.kr

너나드리는 국내 유일의 통일북한 전문출판사입니다.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너나 하며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통일북한 분야 책을 통해 하나의 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통일을 생각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전문 교양서를 통해 일반 독자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며 수익금은 관련도서 연구 출판 및 통일기금으로 활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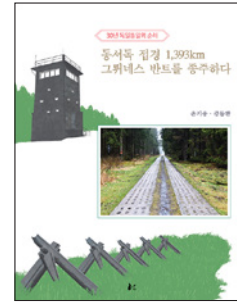
통일의 눈으로 서울을 다시보다: 정동 광화문 편

국내 최초 통일여행 안내서: 서울 정동과 광화문 이야기!
- 당신이 통일과 만나는 작은 여행



분단이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하는데, 통일은 일상에 스며들지 못한다. 이 책은 '통일야 노을~자'라는 주제로 우리의 일상을 통일의 눈으로 다시 보자는 시도다. 일상의 통일, 통일의 일상을 살다 보면 꿈에도 그리던 통일은 현실이 될 것이다. 서울 정동과 광화문은 국권상실과 독립운동, 분단과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의 현장 한 가운데에 있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희망과 꿈을 고이 간직한 곳이다. 이 책은 정동과 광화문 일대 역사현장을 걸으며 나눔과 통일을 이야기하려는 통일여행길잡이다.

사회과학, 인문교양 | 강동완 외 | 21,000원 | 176페이지 | 2020.4.19.
영문판 『Seoul through the eyes of liberty and peace: Jeongdong & Gwanghwamun』
사회과학 | 강동완 외 | 21,000원 | 176페이지 | 2020.10.10.



동서독 접경 1,393km, 그뤼네스 반트를 종주하다

독일통일 전문가와 함께 떠난 국내 최초 동서독 접경 1,393km 종주 통일기행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된 날로부터 정확히 30년이 흘렀다. 독일통일 사례에서 한반도 통일의 길을 찾고자 지난 수십 년 동안 독일의 이곳저곳을 오갔다.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이 붕괴되던 현장에서 그 감동을 몸소 경험했고, 통일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동독지역을 보며 통일한반도를 그렸다. 하지만 분단의 장벽은 쉬이 허물어지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경계 위에서 고뇌하고 있다. 이 책은 국내 최초로 동서독 접경 1,393km를 종주한 통일기행이다. 분단 시기 독일의 최북부 국경통과소였던 뤼벡-쉬루툼에서 출발해, 체코슬로바키아와 국경을 맞대었던 미텔함머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담았다. 죽음의 띠로 불렸던 동서독 경계선은 그뤼네스 반트라는 이름의 생명선으로 변했다. 분단국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선은 분명 통일의 길잡이라 확신한다. 통일, 가지 않은 길로 가야만 하는 소명이 독일통일 역사를 다시한번 깊게 살펴보도록 우리를 일깨운다.

사회과학, 인문교양 | 강동완 외 | 29,000원 | 480페이지 | 2020.7.27.

평양 882.6km

김정은 시대 평양은 '기념비적 건축물', '멋쟁이 건축물'로 변신 중이라며 선전한다. 하지만 북중국경에서 바라본 북녘의 모습은 평양과는 사뭇 달랐다. 그곳에도 분명 사람이 살았다. 하지만 결코 꿈꿀 수 없는 평양 밖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모진 삶의 무게가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 어렵פות이 전해오는 듯했다. 북중국경에서 촬영한 수 천장의 사진을 정리하면서 유독 한 장의 사진에 눈길이 머물렀다. '평양 882.6km'라고 쓴 표지판 앞에 선 군인의 옛날 얼굴... 분명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슬픔이 전해오는 건 왜였을까? 시리고 바스락거리는 마음을 애써 다잡았다. 그에게 과연 평양은 어떤 의미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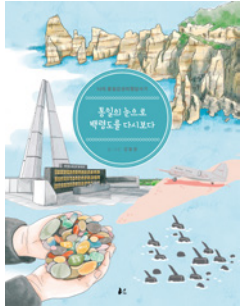
사회과학, 인문교양 | 강동완 외 | 35,000원 | 416페이지 | 2020.12.9.

도서출판 신생

2003년에 설립되었으며 문학을 비롯한 인문학서적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신생인문학연구소>와 연계하여 다양한 인문학 강좌와 연구에 힘쓰고 있으며, 그 성과물들이 출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생시선』, 『신생비평선』, 『신생학술총서』, 『신생인문총서』 등의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신생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35번길 5
010-4211-6201
lapori01@hanmail.net



통일의 눈으로 백령도를 다시보다

서해 최북단 끝섬이라 불리는 백령도, 그 섬에 가보고 싶었다. 하늘과 바다가 잔잔한 마음으로 다섯 시간의 뱃길을 허락해 주어야만 닿을 수 있는 여정. 백령도에서는 북한 황해도가 지척이다. 바다의 경계 너머 붙어오는 북풍은 고향 내음을 한가득 담았다. 분단의 시선을 거두면 백령도의 자연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이탈리아 나폴리 해안과 함께 전 세계에 단 두 곳밖에 없다는 사곶해안, 수억 년의 시간이 바위를 빔어 만든 콩돌해안, 남북한을 오가는 점박이물범 등 천연기념물만 다섯 곳이 넘는다.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가 제일 먼저 밭 디딘 곳도 백령도다. 분단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백령도는 통일성지와도 같은 곳이라면 너무 과장된 표현일까? 섬 어디를 둘러봐도 통일감성 여행지로서의 발걸음을 재촉한다.

사회과학, 인문교양 | 강동완 | 24,000원 | 224페이지 | 2021.3.26.

역풍에 정점을 찍다

김용태 시조시인의 네 번째 시조집이다. 이번 시조집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시인은 “시조는 동양정신의 산물이요, 자기 수행의 양식이다. 자기 단련 없이 시조를 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시조 자체가 오랜 세월동안 그의 삶 전체를 회통하는 하나의 화두이자 삶의 철학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전체 5부로 나누어진 시집은 불교적 상상력, 삶의 의지와 대결의식, 현실 비판과 풍자, 삶에 대한 성찰과 관조, 자연과 서정을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의 다양성은 형식면에서 비록 단시조를 택하고 있다고 해도 내용면에서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조 창작에 있어서 정형이라는 형식의 틀과 방법의 변조는 서로 이질적이지만, 이 경계를 벗어난 자리에서는 정형과 변조의 구분이 사라지고 만다. 이것은, 그의 시조가 처음부터 화두를 삼고 있는 ‘자기 수행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며, 그 수행의 방법론으로 시조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학 | 김용태 | 10,000원 | 136페이지 | 2020.5.25.



이미지와 코드로 풀어보는 영화 이야기

이 책은 저자가 이 시대에 주목해야 할 영화 18편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풀어낸 영화 이야기이다. 영화 예술도 인문학의 범주로 포섭된다. 아니 영화 예술은 바야흐로 인문학의 중심부로 침범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편이 옳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더욱 밀착된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일상화는 영화에의 접근을 한층

용이하게 하였다. 영화를 읽고 즐기는 일은 이제 현대인이 살아가는 한 방식이 되었다. 영화에서 이미지는 결코 일정하게 고착될 수 없으며, 라캉 식으로 말하면 기표의 '고정점(point de capiton)'으로 작용하면서 무한한 의미를 생성한다. 달리 말하면 영화 속에 내장된 이미지와 코드들은 우리 상상력의 불꽃을 풀무질한다. 각각의 영화 속 이미지와 코드들은 당대를 되비추거나 전망을 제시하기도 한다. 때때로 인간의 근원을 훑아보기도 하며, 거기에 대한 끝없는 성찰을 요구하기도 한다. 『영화 이야기』는 오늘의 '데카메론'이자 '천일야화'이다. 이 이야기에 감춰진 술한 이미지와 그 이미지가 빚어내는 환영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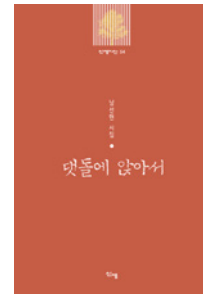
인문교양 | 권택우 | 18,000원 | 364페이지 | 2020.10.20.

아동문학의 근원

황선열 문학평론가의 아동문학 평론집이다. 근현대 한국의 아동문학작품들을 대상으로 살피고 있다. 아동문학이 그 근원을 잃고 출판자본에 의한 시장화로 흘러가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는 저자는 다시금 아동문학의 근원이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동문학의 근원은 무엇보다 동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심이 곧 천심임을 자각할 때 아동문학에 대한 제대로 된 잣대와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한다. 단행본 또는 신춘문예와 여러 아동문학잡지 등을 통하여 발표되고 있는 작품들을 꼼꼼하게 따져 읽으며 아동문학의 흐름과 아동문학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문학 | 황선열 | 15,000원 | 269페이지 | 2020.12.10.



땃들에 앉아서

남선현 시인의 신작시집이다. 시인의 시는 존재의 본질에 대한 탐구이자 존재의 구원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년의 나이가 됨으로써, 그리고 고향이라는 시골에 들어감으로써 보다 근원적이지자 궁극적 세계로 관심을 넓혀가는 시인의 의식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편들이다. 시인에게 고향에서의 생활은 단순한

귀농이나 거처의 의미를 넘어 보다 가치 있는 세계로의 도약이며, 생의 본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일이다. 남선현이 그리고 있는 시적 진전과 도정은 노년의 존재가 추구할 수 있는 구원의 한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문학 | 남선현 | 10,000원 | 149페이지 | 2020.12.15.

현대시의 문화 읽기

현대시에서 '문화'를 별도의 코드로 삼아 연구한 학술서이다. 특히 다문화와 관련하여,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시를 썼던 시인들과 중국 체험이나 체류 경험을 가진 시인들의 시에서 일본문화나 중국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고자 했는지를 시 작품을 통해 추적한 연구이다. 그것들이 이 책에 수록된 「주요한의 상해시절 시와 이중적 글쓰기의 문제」, 「정지용 초기 시의 일본문화 수용과 문화의식」, 「백석 시의 중국문화 수용과 문화의식」이다. 또한 주요한, 정지용, 백석 시에서 공통적으로 인력거 또는 마차의 심상이 시의 중심 이미지로 나타나기에, 이들 시 작품들을 대상으로 세 시인의 경우를 비교하여 문화 심상을 통한 문화의식의 문제를 집중 검토한 글이 「'인력거'와 '마차'의 시적 수용과 문화 심상의 의미」이다. 「'촛불'의 상상력과 의식지향성」은 '촛불'에 관한 정치적 관심들이 난무할 때, '촛불'에 대한 문학적 관심을 담은 글이다. 일제강점기의 시에서 '촛불'의 심상이 나타난 작품들을 찾아서 그것들이 어떤 의식지향성을 보여주는지 바슐라르의 현상학적 통찰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문학 | 박경수 | 15,000원 | 302페이지 | 2020.12.22.

플랫폼 리터러시와 액체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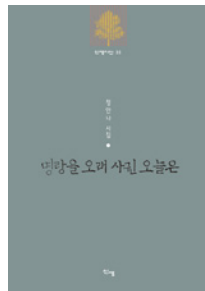
이 책은 디지털적인 가치관, 디지털적인 프로세스,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생산, 향유,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를 텍스트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희와 통찰의 온갖 하이브리드한 조합을 매체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을 플랫폼 리터러시로 이해한다. 제1부는 혁명의 관점에서 텍스트의 양식 변화가 시대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음을 읽어낸다. 카드뉴스와 감성공론장, 텔레비전 예능의 과잉, 충동적인 양상과 인간 실존 등의 문제를 다룬다. 제2부는 가면 자체가 진실이 되는 디지털 사회, 먹방이 구현하는 혁명성과 통치성, 가수 신해철의 삶이 구현하는 한국사회의 음란과 윤리, 영화 <국제시장>을 통한 로컬의 좌절을 포착한다. 제3부는 낙관/비관, 폭력/애정, 세속/종교가 공존하는 현대사회의 겹침 현상을 돌아본다. 고양이의 야성과 대도시의 정치, 귀여움의 판타지에서 속물적이고 동물적인 장애 상황, 여행과 재주술화 등을 살펴본다.



인문교양 | 권유리아 | 15,000원 | 286페이지 | 2021.3.15.

명량을 오래 사귀어 오늘은

정안나 시인의 세 번째 시집이다. 정안나 시가 보여주는 실존적 거처로서 ‘겨울’과 ‘방’의 장소 이미지와 그에 대응한 시적 자아들의 모습은 소비자본주의 시대의 일상이 갖는 부정성에 대한 시적 대응이다. 정안나 시에서 다루는 ‘밝음’과 ‘웃음’은 진정한 가치가 아니다. 그것은 만들어진 가짜의 감정이거나 상태다. 무미건조한 일상 속에 비진정한 자아로 살아가는 자신의 의식과 현실을 반어적으로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안나의 시는 소비사회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묵시록적 비전을 제시하는 우리 시대의 음화(陰晝)다. 그런 점에서 정안나 시는 끊임없는 의혹 제기이자 삶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미궁 탐사기의 의미를 갖는다. 즉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구경꾼-시인’의 비망록으로 그 특이한 존재성을 갖는다.



문학 | 정안나 | 10,000원 | 132페이지 | 2021.4.5.

도서출판 전망

전망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55
051-466-2006
w441@chol.com

1992년 설립되었으며 시집, 소설집, 수필집, 문학비평 등 문학 중심의 서적을 출간해왔습니다. 이외에도 인문학서적, 사진집, 번역서 등을 발간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시전문계간지 『신생』을 통하여 지역문학과 문화의 텃밭을 가꾸고자 합니다.

희망공화국

남기태 시인의 시집 『희망공화국』은 변치 않는 부동의 미학을 견지하고 있다. 부동의 미학은 변동의 미학을 전제로 할 때 부동의 미학이 더욱 빛날 수 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어울림 속에서 더욱 빛나는 법이다. 남기태의 시는 부동과 변동의 어울림이 어떤 것인지를 조용히, 그리고 끈기 있게 보여주고 있다. 그의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범속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리고 평범한 것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문학 | 남기태 | 13,000원 | 128페이지 | 2021.2.10.

아버지처럼 나도 내 아들에게

이 책은 동화작가이자 비제도권 교육자인 아버지와 도서관 사서로 근무 중인 아들이 함께 쓴 산문집이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군대를 다녀오고, 사회인으로, 한 집안의 가장으로 성장하기까지의 모습이 모두 담겨 있다. 한 아이의 성장에 가족 모두가 어떠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는지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책읽기가 함께했다. 또한 가르침이나 깨달음이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아이는 부모를 통해, 부모는 아이를 통해 서로 배우고 순간순간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다. 아들과의 유럽 배낭여행, 아들과 또래의 아들 친구들과 함께 해온 민들레학교 이야기, 아들의 군대시절과 결혼이야기, 아들 부부와 함께한 인도여행 등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삶의 지혜와 몽클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산문집이다.



문학 | 백영현, 백이든 | 13,000원 | 237페이지 | 2021.1.15.

그때와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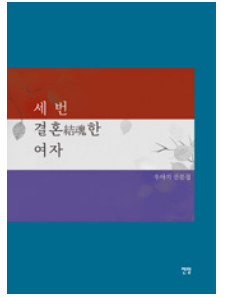
재독문인 류현옥 작가의 네 번째 산문집이다. 1970년 파독 간호사로 독일로 떠나 50여 년 간 베를린과 한국을 오가며 살아온 저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망향의 50년 세월, 디아스포라의 삶이 가지는 슬한 어려움과 질곡 속에서 희망과 끈끈함을 잃지 않고 살아온 저자의 이야기들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많은 울림을 준다. 교포신문 등을 통하여 꾸준히 글을 발표하고 있는 저자 특유의 문체에는 독일과 한국이라는 두 나라를 연결해 주는 독특한 감성이 묻어난다.



문학 | 류현옥 | 14,000원 | 128페이지 | 2020.12.30.

세 번 결혼한 여자

우아지 시조시인의 첫 번째 산문집이다. 총 3부로 44편의 산문이 실려 있다. 우아지 시조시인은 경남 함양에서 출생하여 인제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현대문학을 전공했다. 동아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서 시조창작을 강의하기도 했으며 현재 숲 해설가로 활동 중인 저자의 산문은 자연과 고향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또한 책과 영화 이야기를 비롯한 주변의 사소한 이야기에서 삶에 대한 진지한 물음들을 끌어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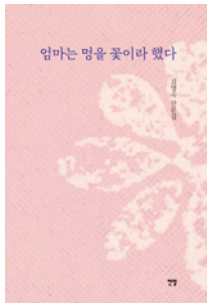
문학 | 우아지 | 12,000원 | 237페이지 | 2020.12.28.

흔적

삼십 여 년 동안 시작 활동을 해오면서 네 권의 시집을 상재한 바 있는 전홍준 시인의 시선집(詩選集)이다. 저자가 자신의 시편들 가운데 엄선하여 싣고 있다. 저자의 삶과 생각을 오롯이 담고 있는 시편들 속에는 가족과 인간사, 자연과 사회문제 등 다양한 인식들을 담고 있다. 저자는 이번 시선집 발간 이후 시쓰기를 멈출 것이라고 한다. 흔적만을 남긴 채 절필하고자 한다는 저자의 심경은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렵다. 그러나 그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맨얼굴과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



문학 | 전홍준 | 12,000원 | 127페이지 | 2020.12.15.



엄마는 멍을 꽃이라 했다

유아교육자로 심리상담사로 일해 온 저자의 솔직 담백한 에세이가 담겨 있는 책이다. 굴곡진 삶 속에서도 그 삶을 지혜롭게 견뎌낸 어머니의 말을 받아쓰기 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툭툭 내뱉듯 투박하고 솔직했던 어머니의 말, 그 속에 담긴 생의 깊은 의미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저자는 고백하고 있다. 삶은 세대를 통해 이어진다.

세대가 변해도 사람살이의 이치는 바뀌지 않는다. 삶의 무게를 견디며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어머니의 토닥거림 같은 따뜻한 격려가 되어주는 책이다.

문학 | 김명숙 | 12,000원 | 213페이지 | 2020.12.5.

카리브해의 누에, 쿠바

소설가인 저자는 한동안 커피공부에 매료되어 유기농커피를 공부하기 위해 쿠바로 가게 되었다. 이후 몇 해 동안 꾸준히 쿠바를 다녀오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쿠바의 정치, 사회, 자연, 문화, 사람들(쿠바노)에 대해 알게 되었다. 여행기이면서도 쿠바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산문집이다. 볼수록 매력 덩어리인 쿠바의 구석구석을 살살이 훑어가며 쿠바를 커피처럼 음미하며 쓴 글이다. 쿠바의 정치세계, 노벨문학상을 받은 헤밍웨이의 삶과 문학, 언제나 사람이 우선이었던 혁명전사 체 게바라, 쿠바의 사회 문화, 의료시스템, 결혼제도, 식생활, 화폐제도 등 저자가 직접 체험한 쿠바의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책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사진들도 모두 저자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다.



인문교양 | 김득진 | 25,000원 | 288페이지 | 2020.11.30.



위대한 사기

문성수 소설가의 세 번째 소설집이다. 복잡다단한 인간의 내면세계와 인간사에 대한 통찰을 드러내는 8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도덕을 말하면서도 도덕적이지 않고 정의를 말하면서도 정의롭지 않은 현실을 주 소재 대상으로 한 세태소설집이다. 불온한 상황들을 재현함으로써 인간적 삶의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소설들이다. 이번 소설집에 실린 소설의 배경으로 부산의 구체적 장소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장소에서 전개되는 사건들이 결국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소설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며 친근한 장소를 통하여 지역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려는 의도 또한 아울러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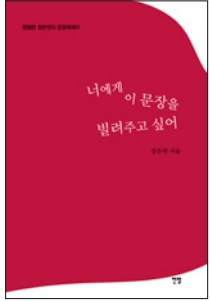
문학 | 문성수 | 13,000원 | 206페이지 | 2020.11.25.



반려바다

인문학 북카페 백년어서원은 '글쓰기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글쓰기를 통하여 생각과 질문의 힘을 키우고 그 힘으로 우리 삶과 공동체를 고민하며 올바른 가치를 선택하는 용기야말로 가장 절실하고 적합한 인문학운동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이다. 해마다 3월부터 9월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글을 받아 『개똥철학』이라는 책을 출간해 왔다. 이러한 '시민들의 글쓰기'라는 취지의 결실로 2014년부터 폭력, 공존, 장소, 돈, 자유, 공부, 길이라는 주제로 책을 엮었다. 올해 7번째 책으로 주제는 '바다'이다. 부산은 바다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도시다. 바다에 대한 다양한 사유를 담은 작가, 시민, 학생들의 글 27편을 실었다. 일상에서 늘 가까이 하면서도 깊이 사유하지 못했던 바다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문학 | 백년어서원 | 14,000원 | 292페이지 | 2020.11.17.



너에게 이 문장을 빌려주고 싶어

평범하게 살아온 저자의 첫 에세이집이다. 저자는 생활의 틈틈이 꾸준히 독서를 해오면서 마음에 닿는 문장들을 모아 저장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유하고 고민해 왔다. 책을 읽고 책의 문장들을 곱씹어 사유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노력들이 50여 편 에세이 형식의 글로 결실을 맺고 있다. 저자의 글은 작고 소소한 이야기들이면서도 잔잔한 감동을 주는 생활 글쓰기의 전형을 보여준다. 자신에서 출발한 이야기들은 타자를 만나고 사회를 성찰하면서 보편성을 획득해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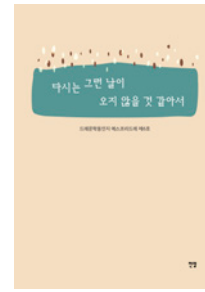
문학 | 장은연 | 12,000원 | 221페이지 | 2020.11.5.



남극해

이 소설은 전인미답의 거친 해역 '남극해'를 무대로 선원들과 '남극이빨고기' 두 생명체 간의 치열한 사투와 응전을 보여준다. 물에서의 상처와 기억을 버리고, 자본의 욕망에 포획된 인간 군상들이 대자연의 힘에 굴복해 바다에 문힘으로서, 역설적으로 영원한 삶을 얻는 지난한 과정을 긴박하게 서사화 한다. 유용한 기초해양상식과 조업현장 선박운항기술들이 전편에 깔린 이 소설은 말한다. 생명과 죽음, 양가성(兩價性)이 공존하는 문제적 장소 바다, 그럼에도 인간의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문학 | 이윤길 | 14,000원 | 302페이지 | 2020.10.30.



다시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2010년 결성되어 십 여 년째 지속되어 오고 있는 드레문학회의 동인집이다. 김금예, 김덕조, 김복혜, 김옥희, 김정읍, 라성자, 방민실, 변순자, 신서영, 신창선, 안영순, 이두래, 이승숙, 이현미, 최아란, 현주, 황선유, 고유진, 김병국, 김연희, 류옥진, 송차식, 정말심, 정선우, 홍미영 동인의 시와 수필 작품이 실려 있다. '드레'의 의미는 인격적으로 점잖은 무게를 뜻하며, 드레문학회는 시인이며 수필가인 유병근 선생님과 함께 시와 수필 창작을 위해 모인 문학공동체이다.

문학 | 드레문학회 | 12,000원 | 188페이지 | 2020.10.20.

내 안의 사각지대

정문숙 작가는 정신분석학을 토대로 문학 심리상담과 미술 심리상담 지도 등 심리 치료에 관한 공부를 지속해 왔다.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시작한 글쓰기가 인문학 강사로서 작가로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동안 참여자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보며 더 깊이 '치유'라는 화두에 몰입하였다고 한다. 저자는 내연과 외연에 갇든 '내 안의 사각지대'인 그림자를 밝히기 위해서는 나만의 빛갈 즉, 자기다움을 찾아야 함을 문학의 언어로 노래한다. 믿었던 길에 대한 확신이 열어졌거나, 죽도록 매달렸던 것들이 무가치하다 느낄 때, 잠시 멈추고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이다.



문학 | 정문숙 | 12,000원 | 220페이지 | 2020.10.16.

어머니 손톱을 깎아드릴게요

故 양영진 민주열사의 시집이다. 1988년 10월 10일 부산대 국문과 재학 중 ‘어머니, 사랑, 민주’ 등이 쓰인 혈서와 ‘내 고여운 연인에게’ 등 다수의 유시를 남기고 민주화를 위해 투신 자결한 열사의 유고 시집을 재간행하였다. 양 열사의 처음 유고 시집은 1989년 옛 친구출판사에서 『식민의 땅에 들불이 되어』로 출간됐다. 다시 31년 만에 재간행 된 이번 시집에는 첫 시집에 실린 습작에 가까운 다섯 작품을 제외하고 모두 실려 있다. 군부독재의 타도와 미 제국주의의 축출을 외치는 뜨거운 저항시이면서 탁월한 문학성을 지닌 시편들이다.

문학 | 양영진 | 10,000원 | 190페이지 | 2020.9.30.



지리산에 바람이 분다

이인규의 장편소설 『지리산에 바람이 분다』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이라는 통한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다. 의문의 사건으로부터 서스펜스를 증폭시켜나가면서 마침내 사건의 진상을 해명하는 수순으로 펼쳐지는 서사 전개가 박진감 넘친다. 외지인과 선주민의 대립, 좌와 우의 대립, 샤머니즘(토속신앙)과 기독교(외래종교)의 대립, 과거와 현재의 대립이 켜켜이 쌓여 전체 서사를 입체적으로 만들고 있다. 의문에서 해명에 이르는 서사 전개의 과정을 해원상생(解冤相生)의 주제의식과 겹쳐놓음으로써 형식과 내용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는 작품이다.

문학 | 이인규 | 14,000원 | 261페이지 | 2020.9.10.



따뜻한 유물

이순남 수필가의 첫 번째 작품집이다. 저자는 한국방송통신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늦깎이로 수필가가 되었다. 아내로 며느리로 어머니로 또 오롯이 자립적인 한 사람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무르익은 생각과 정감들을 따뜻한 문체로 풀어내고 있다. 삶과 사람에 대하여 애뜻함이 묻어남과 동시에 깨달음에 가까운 깊은 사색도 담겨 있다. 잔잔하면서도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는 수필집이다.

문학 | 이순남 | 12,000원 | 215페이지 | 2020.6.30.



낙타의 편지

조의홍 시인의 근작 시집이다. 이번 시집에서 드러나는 시인의 의식은 죽음과 소멸이라는 인간의 숙명성에 천착하고 있다. 삶에서 항상적으로 따라붙는 이 죽음에 대한 의식을 비밀스럽게 간직한 채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시인 자신과 인간의 모습을 낙타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운명적 절망성조차 껴안으며 삶의 아름다움을 찾아나서고 있다. 시집 곳곳에 등장하는 여러 지명들은 실재하지 않는 곳도 있다. 시인이 가고자 하는 이상향이자 시인의 상상력이 뛰어노는 자유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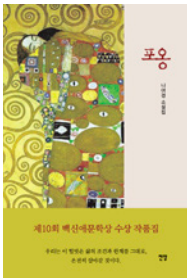
문학 | 조의홍 | 10,000원 | 101페이지 | 2020.4.25.

작가의 드론 독서 3

세상은 넓고 읽어야 할 책은 많다. 그럼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작가의 드론독서 3』은 재미있고 즐거운 책 읽기를 위한 나름의 기준을 제공한다. 드론이 하늘에서 넓은 시야로 땅을 조망하듯 현대 한국사회와 세계를 읽기 위한 시각을 제공하는 책들로 주의 깊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서평집은 잘 가꿔진 산책로를 닮았다. 모든 책은 각각 저자가 상당한 시간에 걸쳐 쌓은 지식과 해안을 담고 있다. 160권의 책에 대하여 저자가 밝히는 문제의식을 쉽고 간결하게 요약하고 해설과 평을 달았다. 이 서평집은 책을 위한 책이다. 교양과 논술, 시사를 알기에도 도움이 되는 책이다.



인문교양 | 정광모 | 20,000원 | 623페이지 | 2020.3.16.



포옹(개정판)

나여경 소설가의 두 번째 창작집의 개정판이다. 작가는 파열되고 불온한 세계상을 처절하게 폭로한 첫 창작집 『불온한 식탁』을 상재한 이후 ‘불온한 작가’로 불리어 왔다. 성장기의 트라우마, 음울한 욕정과 거침없는 에로티시즘, 인간의 욕망과 결핍 등을 섬세하고 감성적인 필치로 그려내었던 나여경 작가. 총 8편의 단편을 담고 있는 이번 소설집 『포옹』은 그 제목이 시사해 주듯, 상처 나고 찢겨진 삶, 무의미하고 허망하게까지 느껴지는 삶을 드러내 보이면서도 그것을 끌어안고 넘어서려는 의지와 성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상처를 끌어안고 상처를 넘어서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해하고 소통하려한다는 것은 삶에서 어떤 의미일까. 이것이 우리가 이 소설집을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문학 | 나여경 | 13,000원 | 263페이지 | 2020.3.5.



풀밭에 버려진 감자처럼

『풀밭에 버려진 감자처럼』은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허만하, 김형술, 정익진, 유지소, 조말선, 김참, 김언 등 모더니즘 계열의 시를 쓰는 <세드나> 동인이 중심이 되어 엮어내는 부정기 간행물이다. 동인들의 시와 산문 외에 강성은의 소설과 박대현의 비평적 산문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세드나>의 이름으로 묶어내는 다섯 번째 책으로 문학잡지와 동인지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문학 | 강성은, 김언, 김참, 김형술, 박대현, 유지소, 정익진, 조말선, 허만하 | 12,000원
197페이지 | 2020.2.10.

도서출판 한국인

(도서출판 부산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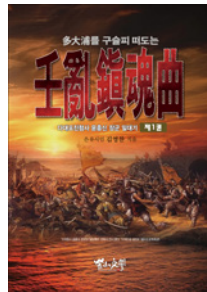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08번길 7-3
051-929-7131
sahachanchan@hanmail.net
(도서출판 한국인) www.mkorean.com
(도서출판 부산문학) www.busanmunhak.com

도서출판 한국인은 1976년 6월 종합광고대행사 데코·브레인 산하에 설립된 도서출판 비둘기둥지의 후신으로 1990년 주식회사 한국인 법인설립과 동시에 현재의 출판사 명칭으로 바꾸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2만여 종의 책자를 제작·출판하며 종이책 발간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종합문예지 『월간문학 한국인』과 『월간 부산문학』등 문학관련 정기간행물 발행과 함께 2019년 1월 도서출판 부산문학을 별도 설립하여 부산지역 작가들의 작품집 출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대포를 구슬피 떠도는 임란진혼곡

이 소설은 외국의 대규모 병력이 쓰시마섬[對馬島]에 용거(雄據)하고 이어 부산포(釜山浦) 및 다대포(多大浦)를 기습(奇襲)해 온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 발발(勃發)일을 주요 시점으로 잡고 있다.

이 소설은 당시 파죽지세(破竹之勢)로 밀고 들어온 왜군을 맞아 다대포진성(多大浦鎭城)을 지키다가 끝내 장렬하게 순사(殉死)한 영웅, 그럼에도 후대(後代)의 관심에서 소홀해진 어느 한 영웅에 관한 서사시(敘事詩)이다. 그는 임란을 통해 최초의 승전보(勝戰譜)를 우리 역사에 남긴 장수로서 우리는 그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전공(戰功)을 높이 기려야 한다.



문학 | 김영찬 | 15,000원 | 228페이지 | 2021.5.10.



나이야 가라

동일 시공(時空)의 상황에 처한 생명체는 그 환경에 적응하는 적응기제(適應機制)에 공통점을 띤다. 그러기에 노인세대는 노인세대대로의 특성을 나타내 보이기 마련이다.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이 있다. 어른 세대에게 투영(投影)된 시대적 상황을 수필 형식을 빌어 감칠맛 나게 남겨 놓으면 미래 세대들이 앞선 세대를 이해하게 되리라. 이로써 문화 콘텐츠의 전수(傳受)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도 나만의 누구도 닮지 않은 나의 인생의 궤적(軌跡)을 돌아보면서 근·현대사의 파란만장한 장면 장면의 편린(片鱗)을 모으고 이마적 노리(老羸)에 겪는 감상도 곁들여 보았다.

필자가 체득한 일제하의 학교생활, 해방 직후의 혼란한 사회상, 6·25의 고통, 산업화, 민주화의 땀과 눈물을 수필이라는 버릿줄로 꿰어보았다.

문학 | 윤평원 | 12,000원 | 228페이지 | 2020.11.10.

도서출판 해성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37번길 7-1
051-465-1329
book0485@hanmail.net
www.book0485.com

1989년 설립한 도서출판 해성은 31년간 지역출판문화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해성시선』, 『해성소설선』, 『해성희곡선』, 『여럿이문고(동화·동시)』시리즈와 지역문화콘텐츠 대상으로 꾸준히 출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단행본(500여권)을 발간하여 2012년 문화부 우수도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세종우수 도서로 선정되었고 2016년과 2018년에는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공모에, 2019년에는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청소년종합문예지 『푸른글터』를 15년간 꾸준히 발행하고 있습니다.

1951, 소년만화가열전

1909년 <대한민보>의 만평으로 호기롭게 시작한 근대 한국만화는 일제강점기 통제와 감시 속에서 시사만화가 겨우 연재되다가 곧 일제의 탄압으로 사라졌지만,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재게되었다. 시사만화는 주요 연재 매체인 신문, 잡지가 우후죽순 창간되며, 활발히 연재되었다. 또한 국내외에서 의욕적으로 활동하던 실력있는 만화가들이 속속 작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은 모든 것을 일시에 무너뜨리고 만화도 암흑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후 1951년, 부산 중심으로 현대만화사를 재조명해 보았다.



문학 | 박기준, 안지혜 글 | 강설송 그림 | 12,000원 | 208페이지 | 2020.12.17.

2000년 가야불교 뿌리를 찾아서

역사는 과거의 일이 아닌 현재의 삶이다. 과거 우수한 문화를 꽃피웠던 신비의 나라, 잠들어 있던 가야가 시절 인연이 도래한 덕에 드디어 깨어나고 있다. 가야는 비록 패자가 되어 역사 속에 묻혔지만, 가야 땅에서 조상의 얼을 이은 그들은 지금도 ‘가야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가야불교의 역사적 가능성과 의미를 묻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는 걸음이 본 책이다. ‘가야불교는 허구’라는 입장이 다수인 상황에서 삼국유사 등 역사기록과 지역에 전래돼 온 다양한 설화에 언급된 단초들을 찾아 살펴보고 기록하였다.

인문교양 | 심재훈 | 20,000원 | 198페이지 | 2020.12.4.



달빛 타는 우륵

기록이 아닌 고분과 유물로만 남아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가야의 역사를 생각하면 가슴 한 구석이 짠하다. 가야에 관해서는 역사의 기본이 되는 연대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실정이라 안타깝기 그지없다. 앞으로 많은 연구와 발굴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작가는 이 글을 썼다. 비교적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신라, 백제, 고구려의 역사에 묻혀 있던 가야의 역사를 재조명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역사 인식을 올바르게 하고, 그 역사를 통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 본다.



문학 | 소민호 글 | 이은성 그림 | 12,000원 | 128페이지 | 2020.11.30.

밀밭 너머 나비를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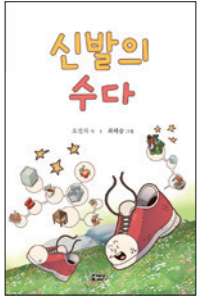
외딴섬에 사는 우리의 친구 영아와 서현이가 펼쳐 보이는 날말로 쓴 수채화 같은 작품이다. 서현이와 영아는 정년퇴임을 한 조부모님과 함께 섬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이다. 이 친구들의 눈으로 본 자연으로 독자를 초대하고 싶었다. 자연 속에서 생각하고 자연 속에서 노는 일은 학원이나 텔레비전, 오락 게임기나 스마트 폰보다 유익하다. 자연은 어린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더욱더 튼튼하게 해주는 유일하고 위대한 스승이다. 어린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위대한 화가이다.



유·아동 | 임신행 글 | 김일순 그림 | 10,000원 | 52페이지 | 2020.10.8.

신발의 수다

오선자 동시집 『신발의 수다』 속에 실린 56편의 동시는 모두 일상 생활 속에서 만나는 소재를 다루고 있다. 여행에서 만난 인상적인 이야기와 전통시장에서의 먹거리에 대한 동시적 생각과, 그 생각을 우리에게 마음에 담은 아름다운 상상력으로 이 책이 엮이게 되었다. 특히 본 도서에서는 동시를 읽음으로써 커지는 세계관을 만화적 세계관을 접목하여 읽는 책에서 보는 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한편의 시화를 그리듯이 보이고자 한 것이다.



유·아동 | 오선자 글 | 최해솔 그림 | 12,000원 | 128페이지 | 2020.7.30.

초록이 태어난날

초록이는 작은 애벌레로 자연에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풀숲의 친구이다. 초록이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작은 애벌레의 성장기를 구성한 책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어린이의 꿈과 희망-자연에서 즐기란 생각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의 작은 에피소드를 소재로 엮은 동화이다. 단편동화에서 만날 수 있는 감동과 참신하고 자연을 만나는 감성이 듬뿍 묻어나는 본 책은 작가가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의 상상력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잘 녹아들어 있다.



유·아동 | 공재동 글 | 김동희 그림 | 10,000원 | 52페이지 | 2020.9.25.

애들아 선생님 오셨다

본 책에 실린 10편의 동화는 모두 다 주제의식이 강하다. 그것은 작가가 자신의 동화 작품의 독자 대상을 어린이들로만 한정하지 않고, 동심을 지닌 성인 독자에게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총 10편의 작품 중에서 거의 반 정도가 순수동화(판타지)인 것은, 작가가 일상생활 속의 작은 에피소드를 다루는 생활동화나 사회현실의 명암을 다루는 아동소설보다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상상력을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학 | 김문홍 글 | 이미해 그림 | 12,000원 | 136페이지 | 2020.6.30.

도서출판3

도서출판3은 2013년 학술적,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학술연구를 독자와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해 시작된 1인출판사입니다. 경성대학교 한자연연구소의 협력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한자와 동양문화 관련 서적을 70여종 출판하여, 한자전문출판사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교양도서, 청소년 도서, 그리고 서양문화와 관련된 서적도 출판하고 있습니다.



꿈을 찾는 사람들

‘찾다’라는 단어는 ‘물레 따위로 섬유에서 실을 뽑다’라는 뜻과 ‘양수기나 펌프 따위로 낮은 데 있는 물을 빨아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꿈을 찾는 사람’이란 ‘꿈을 뽑아내는 사람’, 또는 ‘꿈을 퍼 올리는 사람’을 뜻한다. 이 책은 윤현주 선임기자가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부산일보에 게재한 심층 인터뷰 기사를 재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들의 업적과 성과는 언론이란 공기(公器)를 통해 정당하게 조명될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지역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인문교양 | 윤현주 | 20,000원 | 328페이지 | 2020.5.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929번길 48
070 7737 6738
3publication@gmail.com
blog.naver.com/hisscript

바람결에 새겨진 중국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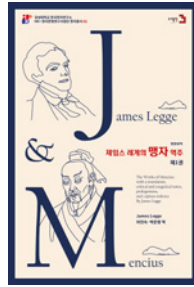
『바람결에 새겨진 중국역사』는 중국의 유명한 역사가이자 문필가인 짜오지엔민 교수가 그 동안 본인이 썼던 책들의 내용과 새로운 글들을 하나로 엮은 역사수필이자 통사적 스타일의 역사서이다. 이 책은 춘추의 바람, 진한의 바람, 대나무 숲의 바람, 치세의 바람, 난세의 바람 5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중국역사의 전반을 이해하면서도 그 속내를 보고 싶은 사람은 물론 경영자, 정치가, 사업가, 직장인들은 필수적으로 보아야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영웅들이 펼쳐내는 이야기들 속에 경영의 요체인 용인술, 리더십이 잘 녹여져 있어 이 책을 경제계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인문교양 | 자오지엔민 | 광복선 번역 | 27,000원 | 505페이지 | 2021.2.25.

제임스 레계의 맹자 역주(1~3권)

제임스 레계(James Legge, 1815~1897)는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이자 한학자(漢學者)로서 옥스퍼드대학교 교수를 지냈다. 그는 동양의 사서삼경을 해설과 주해와 함께 최초로 영어로 번역하여, 동양철학을 서양에 소개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특히 레계가 영어로 번역한 『맹자』는 1800년대 말에 지어졌음에도, 오늘날까지 영어권의 표준역본으로 공인되고 있으며, 그의 경전 해설은 동양연구자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다. 레계의 『맹자역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왼쪽 페이지는 레계의 원문을, 오른쪽 페이지는 한문으로 된 맹자 원문과 한글번역을 같이 실었다.



갯골문 고급사전

『갯골문 고급사전』은 갯골문 발견 12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한자어원사전이다. 『갯골문실용사전』의 611자에 더하여 총 1613자를 수록하였다. 모두 한자의 어원을 해석하여 얻은 기초자의 모음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수록된 한자만 알면 나머지 모든 한자는 유추해가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최신 출도 자료를 활용한, 한국에서 보기 힘든 고품격 한자어원사전이다. 한자의 정확한 어원 해석을 통해 한자를 더욱 슬기롭게 체계적으로 학습하며, 그 속의 지혜를 찾고 미래 사회의 자산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인문교양 | 제임스 레계 | 이진숙, 박준원 번역 | 2021.1.31.
1권 29,000원 778페이지, 2권 25,000원 560페이지, 3권 25,000원 641페이지

인문교양 | 허진웅 | 하영삼, 김화영 번역 | 22,000원 | 596페이지
2021.1.15.



유래를 품은 한자(1~7권)

이 책은 대만 출신으로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갯골문연구를 해온 이 분야의 세계적 학자인 허진웅교수의 역작이다. 저자는 한자를 주인공으로 하여, 주제별로 각 글자들이 담고 있는 세계로 안내한다. 옛사람들은 글자를 만들면서 글자에 대한 설명을 남기지 않았기에, 오늘날 그 어원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저자는 박물관에 재직할 경험을 살려서, 사람이 성장하듯 한자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여주며, 옛 자형들을 마치 고대 그림처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인문교양 | 허진웅 | 하영삼, 김화영, 이지영, 양영매, 곽현숙 번역
2021.1.15. | 1권:동물 270페이지, 2권:전쟁과 형벌 260페이지,
3권:일상생활1 296페이지, 4권:일상생활2 288페이지, 5권:기물제작
356페이지, 6권:인색역정과 신앙 234페이지, 7권:갯골문 실용사전
282페이지



키워드한자: 24개 한자로 읽는 동양문화(상, 하)

한자의 원리를 보면 세상이 보인다. 저자는 24개의 동양사상의 키워드가 되는 한자를 통해 한자 문명권의 오래된 문화적 연원을 추적한다. 예컨대 공(公)과 사(私) 같은 다소 추상적인 의미를 가진 글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을까? 개인의 삶이든 국가의 운영이든 대개 공과 사가 분명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은데, 문자의 연원을 통해 옛사람들의 지혜를 살펴보고 철학적 의미를 담은 한자의 유래를 고찰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책이다.

인문교양 | 하영삼 | 19,000원 | 275페이지 | 2020.12.31.



문화번역과 주디스 버틀러의 이론적 프레임

주디스 버틀러는 『젠더 트러블』(1990)을 출판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학자로서, 2001년의 9/11테러 이후 취약하고 위태로운 삶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오늘날과 같은 불안과 혐오의 시대에 사람들은 “내 삶도 힘들고 고달픈데 왜 가난한 이웃까지 돌보아야 하는가?”라고 외치기 쉽지만, 버틀러는 “나의 고달픈 삶, 혹은 나의 삶의 고난과 위기가 다른 상처받은 이웃과 어떻게

이어져있는가”에 대해 성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내 고단한 삶의 프레임을 너와 더불어 깨뜨리기 위하여, 화석화된 문화 규범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다시 쓰고자하는 것이 문화번역의 과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문화번역이 주디스 버틀러의 저작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주디스 버틀러의 문화번역의 의미와 그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폈고, 문화번역이 기존의 번역연구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1장과 2장에서 번역과 문화번역의 역사와 의미를 간략하게 소개했다.

인문교양 | 정혜욱 | 20,000원 | 99페이지 | 2020.4.15.



군서치요: 세상을 다스리는 360가지 원칙

이 책은 『군서치요』 선집본의 국내 최초 번역본이다. 『군서치요』는 당태종 이세민이 통치의 거울로 삼고자 편찬을 명했던 책으로 50여만자에 이르는 방대한 책이다. 그래서 역자들은 그 중 동양 지혜의 정수가 담겨있는 360가지 항목을 뽑아놓은 말레이시아 중화교육센터가 편찬한 『군서치요』를 번역했다. 책의 부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360가지 원칙’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세상’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360가지 원칙이기도 하다. 자신이 먼저 서야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릴 수 있고, 자신이 공정해야 세상을 공정하게 이끌 수가 있다. 염치와 양심이 살아 있다면 세상은 다스리지 않아도 공정하고 정의로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을 정치가나 고위공직자나 최고경영자 뿐만 아니라, 리더십을 함양하기를 원하는, 미래의 리더로 성장하고픈 한국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좀 더 바른 사회를 세우기 위해 고민하는 한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아울러 세상의 윤리를 바로 세우려고 시도하는 모든 어른들에게 헌정한다.

인문교양 | 중화문화교육센터 편 | 하영삼, 정혜욱, 이용남 번역 | 26,000원 | 566페이지 | 2020.3.15.

두두

두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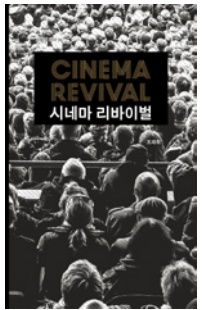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94번길 24
070-7701-4675
doodoobooks@naver.com

‘두두’는 ‘아래로부터의 콘텐츠’를 표방하며 2018년 4월 부산 광안리 바닷가에서 출발한 출판사입니다. 영어단어 ‘doo-doo’는 아기의 응가를 뜻합니다. 것처럼 자신만의 경험과 고민, 상처와 생각을 여린 오장육부로 소화시켜 세상에 처음 내놓으려는 이들과 함께 합니다.

시네마 리바이벌

『시네마 리바이벌』은 영화평론가 조재휘의 첫 저작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국제신문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 꾸준히 집필한 글들을 갈무리해서 엮은 결과물이자, 그가 ‘사랑’한 영화들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그는 사랑한다고 해서 입에 발린 달콤한 말만 늘어놓는 평론가가 아니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영화의 공과를 논하는 그의 글은 때로 서늘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냉철해 보이는 이면에는 영화에 대한 지극한 애정이 자리하고 있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문학 | 조재휘 | 18,000원 | 372페이지 | 2020.9.13.



사랑의 미메시스

문학평론가 정훈의 『사랑의 미메시스』. 비평은 단순히 작품을 해설하거나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을 충분히 해석해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업이다. 작품을 읽는다는 건 작가가 짜 넣은 세계와 언어의 공간에 관여하는 일이다. 여기서 비평가의 욕망구조가 작동한다. 비평행위는 비평가의 욕망구조가 은밀하게 침투하며, 작가의 욕망구조를 교란하고 작가의 욕망구조와 충돌하는 곳에서 생산되는 춤사위다.

문학 | 정훈 | 15,000원 | 216페이지 | 2020.9.20.

무학대사전

무학대사는 출생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데, 오히려 이 불확실함은 이야기가 생산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당시 승려가 되던 이들 중에는 신분이 낮거나 기구한 사연을 지닌 이들이 많았는데, 무학대사의 이야기에 이러한 사정과 대중의 상상력이 섞여들었다. 조선 건국에 기여하고 왕의 스승 자리에까지 오른 미천한 출신의 무학대사 이야기에선 이처럼 식민지 시기 대중의 염원과 욕망이 담겨 있다.

문학 | 장유정 옮김 | 9,800원 | 116페이지 | 2021.5.1.



물음책방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277번길 27-1
010-2862-9417
mucbs@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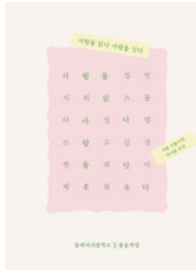
“질문은 해답보다 심오하다”는 인문학적 소양을 지향합니다. 책을 통해 사람을 읽고, 사람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문, 사회, 문학, 청소년 도서를 펴내려고 합니다.

산티아고에서 온 편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딸과 한국에 있는 엄마가 주고받은 편지 형식의 여행 에세이. 20대의 솔직한 고민과 여행의 단상, 갓 성인이 된 딸을 독립시키는 50대 엄마의 솔직한 모습이 따스하게 다가오는 책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는 엄마와 딸이 여행으로 소통하고 인간애를 키워가는 모습이 산티아고 길을 따라 펼쳐진다. 딸의 편지에는 길 위에서 비로소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산티아고 길에서 만난 자연과 순례자들의 발걸음이 경쾌한 일러스트와 함께 펼쳐진다. 엄마의 편지에는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난 딸에 대한 엄마의 불안감과 동시에 딸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진솔하게 드러난다.

문학 | 강진숙, 이산들 | 13,000원 | 2020.12.27.





사람을 읽다 사람을 잇다

『사람을 읽다, 사람을 잇다』는 동래여자중학교 인문학 동아리 ‘귀를 기울이면’ 학생들이 쓴 26편의 독서 에세이를 담았습니다. 『박차정, 민족과 여성의 진정한 자유를 꿈꾸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우리가 몰랐던 노동 이야기』, 『백석 평전』을 읽으며, 다양한 사람과 그들의 시대를 통해 이들이 꿈꾸었던 희망, 시대의 벽에 가로막혔던 절망,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잇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만났습니다. 독립운동가 박차정을 통해 나를 만나고, ‘나는 과연 차별한 적이 없는가?’를 성찰하며, 노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를 비판하고, ‘백석’이 남긴 시를 읽으며 책 속의 인물과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인문교양 | 귀를 기울이면 아이들 | 김성현, 이제훈 엮음 | 12,000원 | 191페이지 | 2021.1.14.

블릭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113
070-8095-5773
odysseus_jh@yahoo.com
www.instagram.com/junghwan_byun_dipwset

블릭은 2020년 부산지역 출판워크숍 ‘책실험실 B-Lab’의 참여로 시작된 신생 독립출판사로서, 와인과 관련한 다양한 도서를 국내 및 국외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블릭은 영어 BLCC의 약칭으로 와인의 품질을 결정짓는 4가지 핵심 요소인 Balance, Length, Concentration, Complexity의 첫 글자를 따온 말이며 한국어로는 균형감(B), 길이감(L), 집중도(C), 복합미(C)를 의미합니다.



와인단상: 와인에 관한 짧은 생각 모음집

와인 애호가들이 겪는 상황을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 보고, 제각각의 해석이 존재하는 일관되지 않은 용어를 과학적인 접근으로 설명한다. 마치 탐정이 단서를 통해 범인을 찾듯이, 오롯이 자신의 감각으로 단서를 찾아 모르는 와인을 찾는 접근법과 흔들리지 않는 테이스팅의 기준을 제시한다. 저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와인 교육기관인 영국 Wine & Spirit Education Trust (WSET)의 최고위과정인 레벨4 디플로마를 일본에서 취득하였으며,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된 여러 시음 노하우를 책 곳곳에 풀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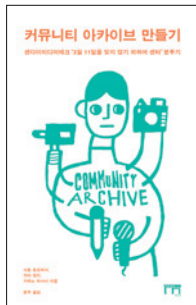
인문교양 | 변정환 | 12,000원 | 152페이지 | 2020.10.23.

빨간집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로 41
070-7309-1947
rhousebooks@gmail.com
blog.naver.com/goodlife05
www.facebook.com/rhousebooks

빨간집은 사람, 문화, 예술, 여성, 지역을 기록하고 출판하는 기록활동가 커뮤니티입니다. 좋은 결과물을 위해 연구자, 디자이너, 사진작가, 예술가들과 협업합니다. 기록한 작업들은 현재의 사람들과 공유하고, 후대에게 물려주고자 합니다.



커뮤니티 아카이브 만들기 - 샌다이미디어테크 '3월 11일을 잊지 않기 위하여 센터' 분투기

이 책은 샌다이미디어테크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아카이브 플랫폼인 '3월 11일을 잊지 않기 위하여 센터(약칭 와스렌!)'의 활동 기록이다. 와스렌!은 동일본 지진에 관한 기억 및 피해 복구, 부흥 과정을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기록하고 발신하는 플랫폼이다. 저자들은 와이를 '푹내기 아카이브'라고 표현하며 이를 위해 와스렌이 어떤 시도를 해왔는지 상세히 소개한다. 덧붙여 이 책은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개념과 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 및 도서, 학자, 예술가들 또한 폭넓게 인용하고 있다.

사회과학 | 사토 토모히사, 카이 켄지, 기타노 히사시 | 윤주 옮김 | 16,800원
344페이지 | 2021.1.11.

기록하는 여자들, 첫 번째-나의 코로나19

여전히 적응할 수 없는 현실뿐이었던 2020년 말, 기록하는 여자들이 모였다. 부산시민도서관의 <기록하는 여자들> 프로그램으로 2020년 10월 말부터 5주간 10번의 만남을 이어갔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대의 변화된 일상을 여성의 경험과 입장에서 글을 쓰며 동시대를 기록했다.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의 경험, 직장을 이직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과정에서의 경험, 원인불명의 질병에 대한 공포 경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깊어지는 사색 등 동시대 속 다양한 기억이 남겨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다.

문학 | 강미미, 강수연, 김현정, 별숲, 손은주, 윤주, 조약들
10,000원 | 130페이지 | 2021.3.22.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

기록관리전문직으로 일하고 있는 저자는 어느 날 부모님이 모아둔 사진을 책으로 엮어보기로 결심했다. 사진을 스캔하고, 서울-부산 간의 거리는 영상통화와 메신저로 메워 부모님께 사진 이야기를 듣고 글로 정리했으며, 책의 편집디자인까지 직접 했다. 부모님과 옛 사진에는 부모님의 개인사가 담겨 있을 뿐 아니라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사회와 시대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시절의 남성과 여성의 이야기가 있었다. 개인의 이야기가 공적인 역사로 읽히는 과정을 사진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문학 | 조지영 | 13,000원 | 174페이지 | 2021.5.8.

산지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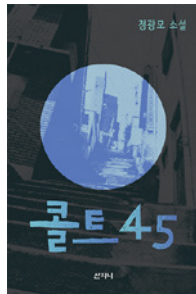
오래된 매를 뜻하는 산지니처럼, 지속 가능한 출판을 꿈꾸는 출판사로, 갈수록 힘들어지는 출판환경 속에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저자와 함께 독자와 함께하고자 하는 바람을 이름에 담았습니다. 인문사회과학, 문학, 예술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400여 종의 책을 출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의 차별화된 콘텐츠가 출판으로 이어지는 데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40
051-504-7070
doodoobooks@naver.com
www.sanzinibook.com
sanzinibook.tistory.com

콜트45

주인공 '나'는 산동네가 싫어 일찍 결혼을 해 집을 나오지만, 비싼 차관을 사려 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아내와 갈등을 일으킨다. 아버지의 호출로 수정동 집에 돌아간 '나'에게 아버지는 콜트 45 권총을 겨누고, 겁에 질린 '나'에게 충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며 전쟁을 회상한다. 총구를 튀어나간 총알처럼, 분노는 돌이킬 수 없다. '나'는 차가운 콜트 45를 어루만지며 차분한 세트를 떠올린다. 미시와 거시가 만나 이뤄낸 분노와 생(生)에 대한 성찰이 인상적이다.



문학 | 정광모 | 18,000원 | 231페이지 | 2020.12.28.

약속과 예측

정동 이론을 젠더 연구와 연결시키고, 이를 '젠더·어펙트' 연구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책에는 물질과 담론, 자연과 문화, 주체와 객체 등 근대적 이원론으로 온전히 포착되지 않는 현실을 드러내 보이는 정동적 분석을 담았다. 젠더·어펙트연구소 공동연구팀은 이 책에서 외부에서 수입된 이론이 아니라 자생적 연구를 통해 '젠더·어펙트'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정초하고자 하며, '연결성'을 탐색하는 다채로운 시선과 함께 '정동적 전회' 이후 '인문의 미래'를 약속한다.



사회과학 | 동아대학교 젠더·어펙트연구소 | 30,000원 | 527페이지
2020.12.28.

보존과 창조

제31회 팔봉비평문학상 수상자 구모룡 문학 평론가의 현대시조 평론집. 이번 비평집에서는 주변 장르로 인식되어왔던 시조의 가능성을 끌어 올리며, 현대시조의 새로운 세계관을 가능하고 있다. 크게 3부로 나뉘며, 1부와 2부에서는 저자 특유의 시각으로 시조시학에 대해 논하고, 3부에는 각 장마다 8명의 시조시인에 대한 구체적인 비평을 담았다.



문학 | 구모룡 | 20,000원 | 259페이지 | 2020.11.30.

걸어서 들판을 가로지르다

제9회 세계문학상 대상 수상자인 박향 작가의 첫 번째 에세이집이다. 이 책에는 제주 서쪽 바다에서 보낸 열흘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여름의 끝자락인 8월의 막바지, 작가는 오랜 친구 '경'과 함께 제주도로 열흘간의 길고도 짧은 여행을 떠난다. 직장인으로, 엄마로, 주부로, 아프고 늙은 부모의 자식으로, 늘 시간에 쫓기듯 살아온 지난 시간이었다. 열흘간의 조용하고 여유로운, '나'에게 집중했던 시간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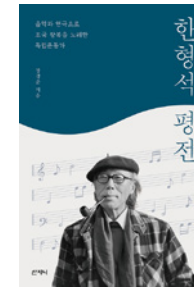
문학 | 박향 | 15,000원 | 208페이지 | 2020.11.18.

오전을 사는 이에게 오후도 미래다

예술과 철학에서 찾은 삶의 무게,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애정, 고통과 불안 속에 버티는 삶의 가치,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의미를 저자의 단단한 사유와 새로운 시선으로 만나볼 수 있다. 흔들리고 고민하며 불안을 안은 채, 그러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곧 다가올 오후도 미래가 될 수 있다고 다독인다.



문학 | 이국환 | 16,000원 | 270페이지 | 2020.1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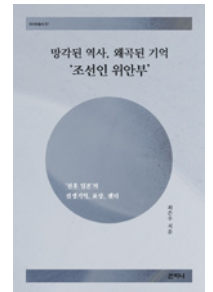
한형석 평전

역사학을 전공하고 역사박물관에서 오랜 기간 일하면서 쌓은 저자의 지식과 경험이 더해져, 한국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로서의 한형석의 활동과 아버지가 한형석의 면모까지 꼼꼼히 전한다. 우리가 기록하고 기억해야 하는 항일예술가 한형석의 모습을 담은 이 책을 통해 예술구국과 문화예술운동에 생을 바친 한형석을 만날 수 있다. 음악과 연극으로 조국 광복을 노래한 독립운동가 한형석의 생애를 전한다.

인문교양 | 장경준 | 20,000원 | 255페이지 | 2020.11.5.

망각된 역사, 왜곡된 기억 '조선인 위안부'

1990년대 초 피해 당사자의 증언으로부터 쟁점화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다양한 학문적 시좌에서 고찰과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일본군 위안부'를 '전후 일본'의 기억과 표상의 영역에서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저자는 패전 이후 일본사회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어떤 식으로 표상되어 왔으며 그 속에 내재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묻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근래에 일본에서 보이는 '위안부'=자발적 성매매여성설의 역사적 계보를 추적한다.



인문교양 | 최은수 | 25,000원 | 284페이지 | 2020.10.31.

좋은 문장을 쓰고 싶다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시대, 하루 종일 무언가를 읽고 쓰는 시대, 지금이야말로 '좋은' 문장이 필요한 때다. 이 책은 조금 더 나은 문장을 쓰고 싶은 당신에게 전하는 우리말 맞춤법 이야기이다.

많은 사람은 생각한다. “‘한글 맞춤법’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걸까?” 이에 저자는 ‘한국말은 어렵다’는 생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선입견이라고 답한다. 원리를 깨친다면 높게만 느껴지는 맞춤법의 벽도 이전에 비해 편하게 넘을 수 있다며, 올바른 글쓰기의 세계로 독자들을 인도한다.



인문교양 | 이진원 | 18,000원 | 351페이지 | 2020.10.9.

봄밤을 거슬러

19년도 현진건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한 「봄밤을 거슬러」는 “생의 후반기를 걷고 있는 노시인을 통해 삶의 관계성과 죽음에의 접근, 꿈과 욕구의 산화(散華)를 섬세하고도 서정적인 문체에 담아낸 수작”이라는 심사평을 받았다. 수상작품을 포함해 7편을 수록한 이 소설집에서는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나이 들과 죽음의 불안, 불편한 인간관계와 불확실한 인생을 다룬다.



문학 | 정미형 | 15,000원 | 236페이지 | 2020.10.15.



캐리어 끌기

책에서는 여러 여성의 다양한 관계를 보여준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어딘가 불안정하다. 부부관계, 모녀관계, 연인관계라는 세 가지 다른 관계 속 여성의 삶을 그려내는 일곱 편의 단편 소설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삶의 균상을 작가의 깊고 유연한 시각으로 묘사한다. 작가는 불편할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정한 마음과 관계가 어찌면 삶의 진실한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다양한 주인공의 시각으로 전한다.

문학 | 조화진 | 15,000원 | 238페이지 | 2020.10.9.



반려인간(꿈꾸는 보라매 13)

문학 교수이자 시인, 평론가, 동화작가인 신진 교수의 두 번째 동화집. 가족과 친구, 이웃, 동물과 식물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존재는 소중하다는 사실을 10편의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유·아동 | 신진 글, 권문경 그림 | 13,000원 | 192페이지 | 2020.9.10.



고인들에서 인공지능까지

기자와 방송본부장, 방송국 대표이사 등을 지내고, 2020년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석환의 첫 번째 에세이집이다. 언론과 미디어의 이론과 실무 등에 관한 저자의 전작과 달리, 이번 책에서는 주로 남도에서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와 함께 4차산업혁명 시대와 최근의 코로나19 등에 관한 단상을 전한다.

문학 | 김석환 | 16,000원 | 297페이지 | 2020.9.10.



(한 권으로 읽는) 마르크스와 자본론

현재 일본의 차세대 마르크스 연구를 주도하는 사사키 류지가 집필한 책이다. 일본 내 마르크스 연구의 최근 성과들에 기반하여 마르크스의 모든 문헌에 대한 엄밀한 텍스트학적 연구에 기초하고, 일본 사회운동의 맥락 속에서 쓴 책이라는 점에서 새롭고 독특하다. 또 마르크스의 사상을 가치형태와 물상화론에서 출발하는 자본주의 비판과 어소시에이션, 물질대사, 공동체, 젠더에 기초한 포스트자본주의 기획을 중심으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통적 주류 마르크스주의와 확연하게 구별된다.

사회과학 | 사사키 류지 | 정성진 옮김 | 18,000원 | 284페이지 | 2020.6.15.

완월동 여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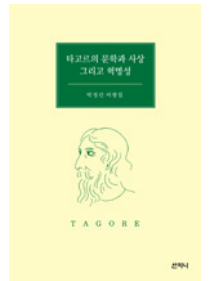
전국 최초이자 부산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의 폐쇄, 그 속에 숨겨진 활동가들의 땀과 눈물이 가득 베인 책이다. 책속에서 저자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결국 우리의 가족이며, 이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책은 생존을 위한 치열함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살아남아 사람을 살리고’, ‘언니들의 일상을 살리고자’ 직진했던 기록이다. 세상의 낙인에 울고, 서로를 향한 위로에 웃었던 완월동 여자들 18년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사회과학 | 정경숙 | 16,000원 | 256페이지 | 2020.8.28.

타고르의 문학과 사상 그리고 혁명성

타고르는 사랑받는 소설가였고 극작가였으며, 음악가, 화가였다. 또한 식민지 인도를 위해 분투한 교육자이자 민족주의자였고 국제주의자였으며, 무엇보다 위대한 ‘시인’이었다. 타고르는 1913년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20년 동안 세계를 순회하며 유럽 제국주의의 우월과 식민지의 열등을 파괴했다. 동서양이 문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공존하도록 진초 역할도 하며 중재자로서 화합의 메시지 또한 전했다. 이 책에서는 문학 평론가인 박정선이 세계 인류를 향한 선과 사랑에 대한 염원을 깊숙이 담고 있는 타고르의 작품과 생애를 평한다.



문학 | 박정선 | 20,000원 | 283페이지 | 2020.5.29.

동북아 바다, 인문학으로 항해하다

분단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다는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다. 역사를 돌아보면 바다를 알지 못했을 때, 혹은 바다를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위기에 처했다. 역사적으로 동북아해역에서는 사람과 물자의 역동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때로는 서구 열강의 각축장이 펼쳐지기도 했다. 책에서는 근현대 시기 동북아 해역에서 일어난, 지식과 사람 그리고 문화의 교류 양상을 인문네트워크의 개념으로 들여다본다. 이 책을 통해 기존의 육지 중심의 사고에서 더 나아가 해역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인문학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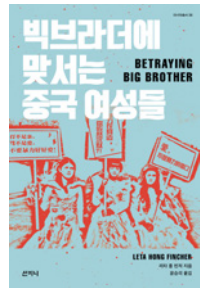
인문교양 | 서광덕, 김윤미, 조세현, 채영희, 공미희, 이보고, 최민경, 안승웅, 양민호, 박수경, 김문기, 정해조, 김창경
20,000원 | 288페이지 | 2020.5.20.



전태일에서 노회찬까지

전태일 정신의 계승은 노동자,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세상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전태일이 죽은 뒤 1970년대 청계피복을 비롯한 민주노동운동과 80년대 변혁적 노동운동, 1990년대 대중적인 진보정당 건설운동 및 산별노조 건설투쟁이 면연이 이어져 왔다. 이 책은 이 중 전태일 사후 대중적 진보정당 운동의 주요 장면들을 그림과 글로 엮어 진보정당의 궤적을 성찰하고 진로를 모색한다.

사회과학 | 이창우 | 16,000원 | 314페이지
2020.5.1.



빅브라더에 맞서는 중국 여성들

인터넷 검열과 통제가 극심한 중국에서 페미니스트들은 과연 어떻게 고군분투하고 있을까? 책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최근 중국 내 페미니즘 운동의 타임라인을 심도 있게 다룬다. 2015년, 시진핑 정부는 '국제 여성의 날'을 앞두고 페미니스트 활동가 다섯 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했다. 구금된 활동가들은 '페미니스트 파이브'라고 불리며 전 세계의 관심을 끌어난 끝에 37일 만에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다. 책의 저자이자 저널리스트 레타 홍 편치는 바로 이들을 심층 인터뷰하며 중국 내 페미니즘 운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야기한다.

사회과학 | 리타 홍 편저 | 윤승리 옮김 | 20,000원 | 331페이지
2020.5.20.



나도 나에게 타인이다

부산 북부경찰서장 소진기의 에세이집. 저자는 현직 경찰서장이자 2004년 수필세계로 등단한 이력을 가진 수필가이기도 하다. 그의 첫 번째 에세이집 『나도 나에게 타인이다』에는 경찰공무원으로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소회와 함께, 자연인 소진기의 삶을 돌아보는 글과, 가족을 향한 애정과 그리움 그리고 한국사회에 대한 뼈아프지만 날카로운 시선이 담긴 글들이 수록되었다.

문학 | 소진기 | 16,000원 | 304페이지 | 2020.3.31.



내러티브와 장르

미디어 연구의 주요 개념 내러티브와 장르를 소개하는 개론서. 드라마 X파일에서 신문 기사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예시를 들어 프롭, 레비스트로스, 바르트를 포함한 주요 내러티브 이론가와 그들의 이론을 다룬다. 장르에 대한 분석도 방대하다. 느와르 영화, 로맨틱 드라마 등 각 장르를 바탕으로 장르 기본 구조와 규칙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제공한다. 또한 인물의 성격, 풍경이 담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각 장르의 레퍼토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준다.

인문교양 | 닉 레이시 | 임영호 옮김 | 25,000원 | 453페이지
2020.2.25.



현대 타이베이의 탄생

제국주의 시대 열강들은 식민지의 장소를 간파하기 쉽고, 감시하기 좋고, 통과하기 좋은 공간으로 형성시키는 작업에 몰두했다. 공간의 형성은 도시화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쌓을 수 있는 장소는 파괴되었다. 이 책은 이런 식민지 제국주의와 공간 형성 과정의 명과 암을 보여준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타이베이 현대 도시 공간의 출현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공간의 의미를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 수취빈 | 광규한, 남소라, 한철민 옮김
25,000원 | 399페이지 | 2020.2.18.



헌법과 정치

카를 슈미트가 평생 동안 집필한 44편의 논저를 담은 슈미트 연구의 결정판. 1,212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총 세 편으로 구성되어 바이마르 시대, 제3제국 시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에 쓰인 카를 슈미트의 저작품을 다룬다. 카를 슈미트의 생애와 당시의 글과 분위기에 대한 상세한 주석과 해설을 삽입하였으며, 관련 연구 문헌까지 망라하였다.

사회과학 | 카를 슈미트 | 김효전 옮김 | 90,000원 | 1,212페이지
2020.5.20.

소요-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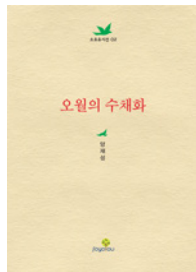
소요-You는 ‘훨훨 날아 자유롭게 노닐다’라는 장자의 ‘逍遙遊’로 인간이 유희할 수 있는 절대 자유의 경지를 꿈꿉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내기보다는 의미있는 책을 내고자 합니다. 1인 출판사로 직접 기획에서, 디자인, 편집, 인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지역출판 우수도서 지원사업’ 선정 및 2020년 부산원복원 청소년 부문에 『급식 시간』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여력이 되는 한 지역에 관한 책들을 꾸준히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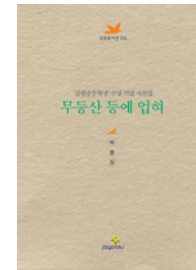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37번길 11
070-7716-9249
pyh5619@naver.com
www.facebook.com/소요-You-658276371038552/

오월의 수채화

이 땅에서 노동자라는 말은 저항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어휘조차도 바른 뜻으로 사용되지 않고 왜곡되어 사용된다는 것이 우리의 비극적 현실을 반증하는 셈이다. 유럽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조합 결성, 파업 등의 노동조합 활동이 들어있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조합이라는 말이 불온의 대명사로 읽히고 있다. 노동자가 생산의 주체로서 제자리를 찾는 일, 우리 민족이 외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 사회가 자유롭고 정의롭게 되는 일, 그런 사회를 이루기 위해 개인의 작은 서사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문학 | 양재성 | 10,000원 | 144페이지 | 2020.5.8.



무등산 등에 업혀

고 박홍원 시인의 김현승문학상 수상을 기념한 ‘박홍원 시선집’이다. 다형 김현승 선생의 추천으로 등단한 이래 40여 년간 시인은 250여 편의 시를 발표했고, 6권의 시집과 1권의 시전집을 출간하였는데, 그 중 88편을 골라 실었습니다. 그의 시는 소재를 객관적인 사상事象이나 자연 가운데서 구하면서도, 그 표현 속에 반드시 어떤 삶의 의미를 담고야 마는 것으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문학 | 박홍원 | 10,000원 | 172페이지 | 2020.12.3.

시와 사상사

시와사상사는 2005년 7월 18일에 출판사로 신고하며 엄선된 유능한 시인들의 시집, 사회집 발간, 평론가들의 문학이론서와 함께 수필가들의 수필집 등의 문학 관련 서적을 전문으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시전문계간지 『시와사상』의 발간을 통해 한국 시문학 발전과 부산 지역 시문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와사상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로 91
051-512-4142
goldkiss@unitel.co.kr
sisasang94.blog.me

꽃뚱

이 시집은 시인이 대부분의 삶의 그늘에서 건져 올린 소리들이다. 시집 속의 시들은 시인이 술한 시간 밀바닥의 삶을 더듬었을 시인의 세계를 증언한다. 소외되고 떨어진 사람들에게 곁을 준다는 것. 삶의 편린에서 근원적 물음을 제시하는 것. 이런 시작은 최선희 시인이 보여주고자 하는 시세계의 방향을 넉넉히 감지할 수 있게 해준다. 제 몸을 울림통 삼아 공명을 만드는 동안 시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떨림을 담담히 받아들인다.



문학 | 최선희 | 9,000원 | 117페이지 | 2020.10.5.

고래가 왔다

이 시집은 정박점을 상실한 존재들과 디스토피아의 세계관에 주목하고 있다. 스스로 굳건한 뿌리내림의 정박점이 되지 못하는 시적 존재들의 모습은 현실세계에 있는 사회 주변부들의 실존성을 대변한 것이다. 시인의 시선이 사회적 소외자나 사회적 약자에게 앵글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그가 따스한 마음을 가진 시인임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시인이 세상을 사랑하는 한 방식으로 정박점을 상실한 존재들을 선택한 것이라 여겨진다.



문학 | 감정말 | 9,000원 | 162페이지 | 2021.3.30.

기린을 기다리는 해변

『시와사상』을 통해 등단한 시인들과 유능한 부산의 여러 시인들이 모여 만든 시창작 모임인 시와사상문학회가 발간한 동인지 창간호로 매년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창간호에는 초대 시인으로 참여한 최영철, 손순미, 조말선, 김미령, 김 룡 시인의 작품이 있고 참여한 회원 시인으로는 신선, 윤홍조, 정익진, 김 언, 안효희, 김순아, 서화성, 강정미, 박지용, 김예강, 정연홍, 박영기, 이효림, 박병수, 한보경, 송미선, 이지인, 최승아, 김근희, 이경옥, 김사리, 김정례, 이상남, 임해라, 정선우, 이기록, 정병호, 이현곤, 강혜성, 박선희, 김영애 시인이 있다.



문학 | 안효희 외 | 10,000원 | 146페이지 | 2020.10.16.

작가 마을

도서출판
작가마을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41번길 15-1
051-248-4145
seepoet@hanmail.net

작가마을은 지난 30여년의 출판경험을 살려 지역출판의 한계를 극복, 부산에서도 기획출판을 해보고자 지난 2002년 8월 출범하였습니다. 서울지역과 다른 영업체계를 구축해 부산에서도 당당히 기획출판에 성공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고자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작가마을시인선』 등 다양한 시집과 수필집, 소설집, 아동물, 문학평론 등의 단행본, 『사이편』 등의 문예지와 해운대문학 등을 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다가 기다리다가

김희영 시인은 이번 꽃 시집 『사랑하다가 기다리다가』에서 세상만물의 조화로운 식물들 중에서 꽃 시를 창작한 이유를 “꽃의 피어남과 흔들림 그리고 피었던 꽃이 지기까지 모두 인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관심을 두게 되었”음을 밝힌다. 그만큼 시인의 심상은 자연과 마주하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과 변화됨을 시적발화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시집 전편이 단순한 자연예찬의 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잘한 생활공간의 이야기, 가족과 이웃들까지 꽃으로 인해 어우러진 ‘사람의 생애’를 그려놓았다. 그래서 더 독자들의 시선을 이끈다.



문학 | 김희영 | 10,000원 | 116페이지 | 2020.1.1.



달빛 그을음

김삼문 시인은 시와 수필을 쓰는 문학인이자 대학에서 정보기술을 가르치는 교수이다. ‘정보기술’이란 첨단산업을 다루면서도 김삼문 시인은 기계적이고 도시적 감성과는 거리가 먼 자연서정을 노래한다. 그만큼 시인이 지닌 고향(경남 함양)의 향토적 정서 또는 부모님들의 정서가 깊이 배인 까닭일 것이다. 하여 이번 시집도 도시적 삶과 향토적 서정성, 그리고 소시민적 애환의 정서인 민초들의 삶에 대한 서정적 이미지의 승화가 돋보인다.

문학 | 김삼문 | 10,000원 | 142페이지 | 2020.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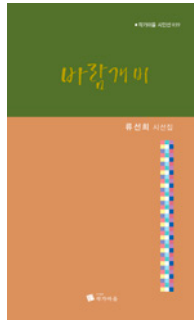
행복 에스프리

미국에서 다층적 예술가로 활동해온 이항영 선생이 한국에 돌아와 한국을 사랑하고 실버세대의 건강을 주문하는 시집 『행복 에스프리』를 펴냈다. 이항영 선생은 1943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시인이자 소설가, 파인아트, 사진학, 박물관학 등을 공부하며 개인전과 그룹전에 다수 참여할 정도로 다층적 예술가로 활동해왔다. 미국명은 리사 리(Lisa Lee). 2017년 국내로 돌아온 이항영 시인은 지난해 이태석 신부를 추모하는 시집 『환한 빛 사랑해 당신을』 펴낸데 이어 이번에는 건강한 노년의 삶과 고국의 자연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담은 시집 『행복 에스프리』를 펴내게 된 것. 이번 시집 『행복 에스프리』는 시인 특유의 즐거움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문학 | 이항영 | 12,000원 | 188페이지 | 2020.3.30.

바람개비

류선희 시인이 문단활동 30년을 기리는 시선집을 펴냈다. 이번 시선집은 1990년 등단 이후 『그대의 빈들에서』부터 지난해 나온 『끝없는 변주』까지 발간했던 11권의 시집에서 옥수들만 골라 6부로 편성하여 모두 150편이 담겼다. 음악을 전공한 류선희 시인은 조금 늦은 나이에 등단하면서도 가톨릭적 세계가 바탕이 된 서정적인 시편들을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발표해왔다. 그동안 전주곡 ‘부산교구가’를 작사하는 한편 『그대의 빈들에서』, 『화수동집 빼꾸기』, 『벽 속의 낫달』, 등 11권의 시집을 펴냈다. 부산시인협회상 본상, 부산가톨릭문학상, 부산문학상 본상, 문예시대 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문학 | 류선희 | 12,000원 | 200페이지 | 2020.5.10.

석류의 후숙

정말심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그동안 응결시켜온 시인의 정서적 내밀함을 언어적 서정성으로 끌어 올리는 작업들을 게을리 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자칫 첫 시집에서 흔히 드러나는 언어적 미숙이나 정서적 불합리와 같은 것을 볼 수 없다. 이는 그만큼 시인의 성품이 조용하고 깔끔하다는 반증이다. 특히 첫 시집에서 고요와 성찰을 함께 보여주는 시집은 흔치않다. 이는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았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타카로 향하는/긴 여정/시로 표현할 수 있음이/행복이다”고 자서에서 밝히듯 시인은 ‘긴 여정’을 쓴다. 그만큼 인생을 쓰는 것이리라. 하여 이번 시집이 보여주는 내면의 깊이가 높을 수밖에 없다. 누가 뭐래도 이번 시집 『석류의 후숙』이 보여주는, 촉촉이 젖어드는 정서적 함몰에 독자들의 시선이 가는 이유이다.



문학 | 정말심 | 10,000원 | 112페이지 | 2020.7.30.

애인이 생겼다

문인선 시인의 시집 『애인이 생겼다』는 시인이 추구해온 순수서정시의 폭을 한 단계 확장한 시집이다. 문단활동 20년이 넘는 시인 인만큼 스스로의 문학적 보폭을 넓히는 일에 주저함이 없다. 하여 사회적 시선에 둔 시들과 안타까움, 그리고 시적 화자가 꿈꾸는 ‘애인’에 대한 갈망을 주저 없이 드러낸다. 물론 여기서 ‘애인’은 언어적 뜻인 이성의 대상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가슴에 품고 있는 이상의 희원이다. 코로나 사태로 힘든 날들이 국민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현재, 문인선 시인의 시집 『애인이 생겼다』는 작으나마 독자들에게 힐링이 되고 웃음을 안겨주는 시집이다. 이는 전문 시낭송가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저자의 경력이 어찌면 시집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문학 | 문인선 | 10,000원 | 136페이지 | 2020.9.10.

빠용77

『빠용 77』은 한 마디로 바다 사나이들의 사랑과 우정의 기록물이다. 현재 부경대학교로 통합된 ‘부산수산대학교 77학번’ 출신의 뱃사람들의 이야기. 대다수가 원양어선 선장을 했던 필자들은 현재도 배를 타거나, 해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중도에 그만 두고 행정공무원으로 나서 구청장을 역임한 사람, 해외에서 살고 있는 사람 등 제각각의 삶을 살고 있다. 조업중 선원 실종(정진욱), 파키스탄어장에서 나포사건(정진욱), 침몰선박 구조지원(김석용), 포클랜드 어장개척(김석용), 무장단체 포격 사건(이학송) 등 바다에서 일어난 상상할 수 없는 생생한 기록들이 이야기 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만큼 『빠용 77』은 단순히 부산수산대학교 77학번 출신 뱃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70~2,000년대 원양어업의 역사이기도 하다. 한편 말미에는 부산일보에 해양소설로 등단한 하동현(전, 519동원호 선장) 소설가의 해양소설 ‘무중항해’도 함께 실려 있다.



문학 | 정진욱 외 | 15,000원 | 312페이지 | 2020.4.30.

빛, sns를 전송하다

김새록 시인은 시인이자 수필가이다. 엄밀히 말하면 수필을 먼저 써온 분으로 수필집도 여러 권이 있다. 하지만 시인은 수필과 다른 경계선의 시를 습작해오다 2017년 정식 시인으로 등단했다. 『빛, sns를 전송하다』는 그런 그녀의 첫 시집이다. 이번 시집에서 김새록 시인은 “너는,/바람 잘 날 없는/장미꽃이다/다가서면 가시를 세운/푸른 눈짓”이라고 자서에서 밝힌 것처럼 자신 내부에 침잠되어 있던 시에 대한 욕망의 표출이다. 하지만 그 욕망은 자연과 순응하면서 또 시인의 잠재된 시각과 자의식의 몸놀림으로 그려내는 수채화이기도 하다. 거시적 사회적 반응보다도 수필에서 담을 수 없었던 대상물에 대한 이미지의 변용이 시라는 또 하나의 미적인 수용으로 나타난 시편들이 모여 있다. 그만큼 한편의 시가 던져주는 담백함을 느낄 수 있다.



문학 | 김새록 | 10,000원 | 120페이지 | 2020.7.20.

그 여름 별자리를 만나다

박숙자 시인의 이번 시집 『그 여름 별자리를 만나다』는 2005년 등단 이후 펴낸 첫 시집이다. 그만큼 다듬은 시간들이 많았다는 반증이다. 시인의 시는 다소 직선적이다. 언어의 기교로 독자들을 현혹하지 않는다. 요즘의 현대시들이 이미지 표층을 두텁게 하는 것은 좋으나 지나치게 언어의 뒤집기나 단편적인 이미지 표출로 전반적인 시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박숙자 시인은 사물에 대한 직관을 통해 자신의 심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러니까 대상과 화자의 심성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솔직한 표현들이 많다. 그만큼 시인은 허위의식을 싫어한다는 성격일 것이다. 그래서 문학적 순수가 아름답다.



문학 | 박숙자 | 10,000원 | 112페이지 | 2020.5.10.



내 안의 만다라

손애라 시인의 이번 시집 『내 안의 만다라』는 그녀가 펴낸 3권의 시집 중 가장 내구성이 뛰어난 시집이다. 시인은 특유의 오밀조밀한 어휘력으로 대상을 깊고도 넓게 확장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시집 『내 안의 만다라』는 그러한 시인의 주도면밀한 서정성을 깊이 있는 사유로 사물을 극대화시키는 재주를 보여준다. ‘만다라’라는 특정 종교적 의미의 제목에 선입견을 가지면 곤란하다. 그만큼 시인의 내구성이 흔들리지 않는 탄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단순히 함축과 상징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연만물의 근원을 파고드는 확장된 상상력이 시집을 읽는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문학 | 손애라 | 10,000원 | 144페이지 | 2020.4.20.

그리운 것에는 이유가 있다

동량청마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역임한 이금숙 시인이 새 시집을 펴냈다. 청마 선생의 문학적 사업을 발굴하고자 중국을 넘나들며 계승사업을 펼쳐왔던 그녀가 한걸음 뒤로 물러나 자신을 돌아보는 작품들로 독자에게 나타났다. 『그리운 것에는 이유가 있다』(작가마을 시인선 42)는 그리움과 회한의 결정로 60여년 인생의 변환 곡점을 견뎌온 시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겼다. 하지만 시인의 굴곡진 인생이 비단 시인 개인의 삶만이 아니다. 우리시대 이웃들이 한번쯤은 겪거나 겪었을 일들이며 그러한 상처의 힘을 시인은 그리움으로 승화 시켰을 뿐이다. 하여 독자들의 감성을 더욱 자극시킨다. 그래서 제목이 말하듯 ‘그리운 것에는 이유가 있다.’ 모든 그리움의 저장소는 사람의 내면에 잠재된 가족, 사랑, 모성에 등 인간 삶의 근간을 만드는 감정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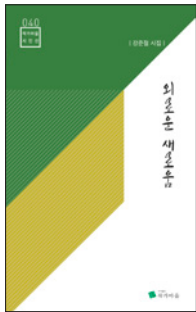
문학 | 이금숙 | 10,000원 | 120페이지 | 2020.9.20.



한국현대시와 토포필리아

부산대학교 양왕용 명예교수가 문학평론집 『한국 현대시와 토포필리아』를 펴냈다. 부산의 금정산과 경남의 남강유역권 시인들의 장소사랑과 작품 활동을 분석한 책이다. 모든 예술인들은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을 잊을 수 없다. 더구나 유년시절을 보낸 곳이라면 평생 심상을 지니고 있다. 그러기에 부산과 경남의 지역에서 나고 자란 시인들은 자연물 하나에도 다른 지어 시인들보다 남다르다 할 것이다. 바로 그러한 시들을 살펴보았으며 실제 창작활동의 결과물인 시집에 대한 평문을 담았다. 토포필리아(topophilia)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어로 ‘장소’ 혹은 ‘공간’을 의미하는 topos와 ‘사랑’을 의미하는 philia의 합성어로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장소사랑’이라 할 수 있으나 그렇게 간단한 개념으로 파악하기 힘들어 그냥 토포필리아로 사용되고 있다.

문학 | 양왕용 | 15,000원 | 352페이지 | 2020.4.30.



외로운 새로움

대학에서 정년퇴임을 하고나서 더욱 더 시 쓰는 재미에 빠진 강준철 시인이 현대시의 한 단면을 담은 시집 『외로운 새로움』(작가마을 시인선 40)을 펴냈다. 시인은 이번 시집 서문에서 “시에는 정답이 없고, 독자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비난 받을 수 있지만 늘 새로운 시를 쓰고 싶다.”고 밝히고 있을 정도로 자신의 시 세계에 대한 변화와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그만큼 시 쓰는 어려움과 그러한 과정을 새롭게 즐기는 시 쓰기를 하고 있는 충만한 현재를 보여준다 할 것이다. 그만큼 강준철 시인에게는 이번 시집이 강단에서 가르친 전공보다, ‘언어창작’이라는 몰입의 사유가 주는 자유로움과 고민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 놓은 결과물인 셈이다.

문학 | 강준철 | 10,000원 | 152페이지 | 2020.5.30.

우물 속에서 뜨는 달

교직에서 물러난 뒤 더욱 열정적인 시 쓰기를 하고 있는 이나열 시인이 세 번째 시집 『우물 속에서 뜨는 달』(작가마을 시인선 41)을 펴냈다. 이나열 시인은 1996년 등단한 이후 24년 동안 시집 3권만 펴낼 정도로 과작의 시인이다. 그만큼 한편의 시마다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다는 것. 특히 이번에 펴낸 3시집 『우물 속에서 뜨는 달』은 생활 속에서 우리나라 서정의 향유를 어떻게 가다듬고 녹아내리는지를 엿볼 수 있다. 시인 특유의 정서가 서사적 시적구조와 맞물려 표현해내는 작품들이 도시서정의 한 형태를 띠고 있어 시에 대한 시인의 전정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문학 | 이나열 | 10,000원 | 150페이지 | 2020.6.10.



새

『새』는 이문영 시인의 두 번째 시집이다. 91년부터 활동해온 이력에 비하면 지나치게 과작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시집은 과거 지나치게 언어에 집착한 시편들과는 달리 서정적 어조에 중점을 둔 시편들이 대다수다. 그만큼 삶의 연륜이 시 곳곳에 배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새』는 현대인들의 메말라가는 정서를 ‘새’라는 치유물로 대체하여 마음의 상처를 정서적으로 치유하며 자가 힐링을 만들어가고 있다. ‘시작업이후’ 라는 부산을 대표하는 동인지 문학을 주도한 이문영 시인이기에 이번 시집을 만나는 반가움이 더욱 크다.

문학 | 이문영 | 10,000원 | 106페이지 | 2020.11.30.



파도가 길을 찾다

우지아 시인이 첫 시집 『파도가 길을 찾다』를 펴냈다. 이번 시집에서 우 시인은 고흐의 ‘해바라기’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화를 시조에 응용하는 획기적 발상과 모험을 보여준다. 그림을 단순히 시의 이해를 위하여 넣은 것이 아니라 그림이 시의 일부가 되어 나타나도록 변용시킨 것이다. 그래서 우지아 시인의 이번 시집 『파도가 길을 찾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시에서는 플라쥬기법 등 그림과 사진을 다양하게 표현한 시편들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전통의 울격을 주문하는 시조에서 명화를 활용한 시조를 쓴다는 것은 시인의 상상력이 남다르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파도가 스스로 길을 찾아 대양을 여행하듯 우지아 시인의 문학세계의 파고도 높고 가파르게 용솨음치고 있음을 이번 시집에서 독자들은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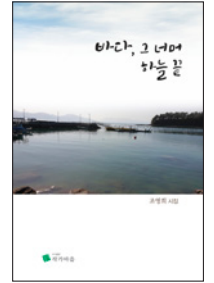
문학 | 우지아 | 10,000원 | 116페이지 | 2020.12.10.



바질토마토

정가을 시인의 시들은 잔잔한 듯 밀물이 거세다. 현대시의 모종을 착실히 창작하는 듯 하면서도 내부의 정열을 고요히 절제된 언어들로 분출시키는 마력이 있다. 언어의 각질을 벗겼다가 모았다가 다시 변화된 교집합을 만드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디밀었다 숨기는 이미지들이 아주 자연스럽다. 신인이 그러한 詩觀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리란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간다. 그래서 독자의 상상력을 더 흡입시킨다. 해설에서 황정산 교수는 “마치 홍상수 영화를 보는 듯” 하다고 평했다. 이처럼 다면의 시적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녀의 첫 시집이 각인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를 독자들이 평가 하리라.

문학 | 정가을 | 10,000원 | 126페이지 | 2020.12.10.



바다, 그 너머 하늘 끝

조영희 시인이 오랜 섬에서의 보건진료소장 일을 하면서 보고 느낀 체험의 정서들을 생생히 담은 시집 <바다, 그 너머 하늘 끝>을 발간했다. 조영희 시인은 서울에서의 공무원생활을 접고 사명감 하나로 오지인 낙도의 섬에서 보건진료 일을 감행했다. 36년간 가덕도 등 남해지역의 섬에서 보건업무를 보면서 바다사람들의 생활을 생생하게 목도하였다. 그런 체험의 기록이 이번 시집 <바다, 그 너머 하늘 끝>이다. 이번 시집에서 조영희 시인은 고기 잡으러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불안한 아녀자들이며 어느 날 배가 뒤집혀 망자로 돌아온 어부, 섬에서 살아가는 해녀 등 섬사람들의 불안정한 삶의 애환과 고립무원의 섬에서 유배를 겪었던 서포 김만중의 삶을 유추한 시편들 등 107편의 시를 담았다. 특히 유배시편들은 시인 자신이 섬 생활을 하면서 쓴 시들이라 그 깊이가 자연스럽게 녹아나 있다.

문학 | 조영희 | 15,000원 | 212페이지 | 2020.12.10.

책펴냄 열린시

책펴냄열린시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길 11
051-464-8716
Myung5463@hanmail.net
cafe.daum.net/see-sea

1991년 설립한 책펴냄열린시는 1인 출판사로 문학서적 전문출판사입니다. 주로 시집과 수필집을 발간하며, 시집『가슴에 내리는 시』 시리즈 98권은 물론 희곡, 철학, 학술 서적도 출간한 바 있습니다. 품격 있는 책을 출판함으로써 저자에게 만족감과 행복을 선사함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빛으로 온 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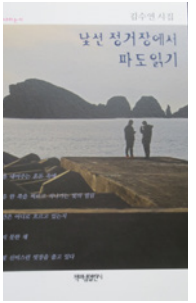
2004년 시집 『뽕고 싶은 웃음』을 상재하여 등단한 해연시인의 여섯 번째 시집이다. 『꽃으로 온 아가』 이후 두 번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쓴 아가사랑 시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들은 나이 들어 손자, 손녀를 안고 생활하는 할머니로서의 행복한 마음을 독자들과 공유하겠다는 의미가 크다. 아기를 갖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이 늘어가는 요즘 아기를 낳아 기르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일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시집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가 커나가는 과정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여 삶의 보람과 인간의 존재 이유를 펼쳐 보이고 있는 서정성 높은 시편들로 일상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행복에 대한 탐구 시편들이다.



문학 | 해연 | 10,000원 | 144페이지 | 2020.6.12.

낮선 정거장에서 파도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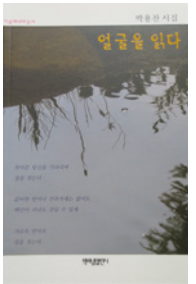
2016년 부산시인을 통해 등단한 김수연 시인의 첫 시집이다. 사진 작업을 하면서 대상 포착에서 느꼈던 에스프리를 놓칠 수 없어서 시를 쓰게 되었다는 시인은 생활 곳곳에서 만나는 사색을 전한다. 그러기에 선택되는 시적 소재는 생활 속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물이나 쉽게 갈 수 있는 근교 삶터다. 예술의 소재는 특별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생활 속에 산재해 있음을 본다. 생활 속에서 찾아내는 우리 삶의 의미나 자아실현을 위한 성찰들이 더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것은 펍 유용하다 할 것이다. 김수연 작품이 보여주는 힘은 이미지보다는 진술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물들 속에 숨어있는 의미들을 찾아내 자신의 세계에 의해 재구성하여 설득력 있는 자신만의 진술을 아날로그로 토해낸다.



문학 | 김수연 | 10,000원 | 144페이지 | 2020.7.8.

얼굴을 읽다

박용찬 시인의 시적 사유는 과거형에서 출발한다. 바솔라르가 ‘시인의 관심은 존재에 있다’고 한 말처럼 박용찬 시인의 관심은 실존에 있으며 온전한 삶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그것을 표출해 낸다. 고향에서의 추억을 간직했던 기억들이 그의 시의 자양분으로 작용한다. 작품들은 과거 유년의 기억이나 피 뜨거운 젊은 시절의 세레나데가 담백하게 그려져 있다. 작품들은 초등학교생이 쓴 그림일기장을 보는 듯 홀로 미소 짓게 하는 작품들로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법한 이야기들이 가공되지 않은 원석을 들여다보는 친근한 정서로 느끼게 한다. 원시림을 탐방하는 느낌을 주는 시편들은 화려한 수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시가 지니는 솔직 담백한 맛이 더 깊고 그윽하며 오랫동안 마음에 칼금을 새기게 해줄 것이란 믿음을 갖게 한다.



문학 | 박용찬 | 10,000원 | 144페이지 | 2020.7.15.

꿈꾸는 풍선 인형

노장현 시인의 시작품들은 익히 아는 것으로부터 도피가 아닌 출발을 가진다. 시의 제목만 보아도 자연적이며 서정적인 시를 쓴다는 걸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시인은 자연과 자연의 관계, 또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형상화시켜 우리 삶에 대한 접근이 한결 용이하게 만들어 준다. 시인에게 자연은 어머니이며 아내이며 집이며 고향이다. 그러기에 시의 어디에서나 자연이 살아있어 반짝이는 숲과 바람과 새와 갈대와 나뭇잎과 노을과 바다를 만날 수 있다. 아니 이 지상의 모든 자연과 교유할 수 있는 광장을 그의 시가 만들어 준다.



문학 | 노장현 | 10,000원 | 128페이지 | 2020.8.20.

미로역에서

2017년 시선으로 등단한 조현숙 시인의 첫시집이다. 작품들은 사물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 사물과 친화하고 새로운 관계 설정으로 자신의 존재와 세계를 인식하려 한다. 시인이 외부 세계와 만나는 최초의 모습은 사물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자신을 발견하는 일일 것이다.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풍경들, 그리고 이웃과 어울리면서 만나는 사건이나 행위들을 발견하고 새롭게 관계설정을 통하여 그것들을 이해하고 내 안에 받아들이는 과정을 펼쳐 나가면서 세계를 이해하는 방편으로 삼는다. 시인이 인식하는 사람과 사물, 혹은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는 유연하다. 세계를 밝고 따뜻하게 보려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문학 | 조현숙 | 10,000원 | 176페이지 | 2020.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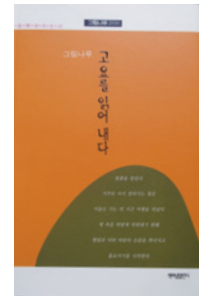
파색조

작곡가이기도 한 홍영지 수필가는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지금 유·소년기에 있는 손주세대의 아이들 때문이라고 한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이 책을 읽는다면 시대와 연령의 간격이 너무 넓어 글의 내용에 공감하기 힘들고, 복잡하고 다변화된 시대에 맞는 또 다른 형태의 고민과 고통, 사유방식이 생길 것이지만 자기 세대가 있기까지 앞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와 연결 되었는지 이해하는데 약간의 도움은 되리라 생각한다. 공감은 안 되더라도 윗세대의 삶과 사유방식을 들여다보고 지금의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자신의 소년기 어둠던 이야기도 몇 편 실었다. 자신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쉬이 고개를 끄덕이며 옛 일을 추억하리라 믿는다.

문학 | 홍영지 | 15,000원 | 224페이지 | 2020.9.10.

고요를 읽어내다

2017년 시선으로 등단한 조현숙 시인의 첫시집이다. 작품들은 사물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 사물과 친화하고 새로운 관계 설정으로 자신의 존재와 세계를 인식하려 한다. 시인이 외부 세계와 만나는 최초의 모습은 사물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자신을 발견하는 일일 것이다.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풍경들, 그리고 이웃과 어울리면서 만나는 사건이나 행위들을 발견하고 새롭게 관계설정을 통하여 그것들을 이해하고 내 안에 받아들이는 과정을 펼쳐 나가면서 세계를 이해하는 방편으로 삼는다. 시인이 인식하는 사람과 사물, 혹은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는 유연하다. 세계를 밝고 따뜻하게 보려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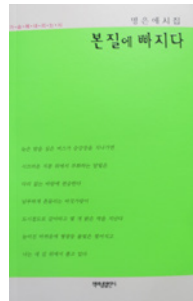
문학 | 그림나무 | 15,000원 | 192페이지 | 2020.11.25.

난분분 바람

2009년 문예춘추로 등단한 김원용 시인의 네 번째 시집이다. 『난분분 바람』은 우선 재미를 가져다준다. 시인의 삶의 바닥에서 진하게 우러나오는 외로움이 느껴진다. 아무리 감추고자 해도 드러나는 인간의 비밀스런 감정의 밑바닥에 잠재해 있는 것은 외로움이다. 시에서만 그것이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실생활에서도 김원용 시인에게서는 진한 외로움, 고적감을 만날 수 있다. 휴대폰을 통하여 수시로 띄워 보내는 슬한 문자와 이미지들, 그리고 동영상 접할 때 그것들은 일방적인 통로라고 볼 수 있지만 외롭고 쓸쓸한 이들은 끊임없이 누구와 소통하려 든다. 이 시집에서는 그런 바람을 가식 없이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문학 | 김원용 | 10,000원 | 144페이지 | 2021.4.5.



본질에 빠지다

2012년 청옥문학을 통해 등단한 명은애 시인의 세 번째 시집이다. 이 시집에서 시인은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해내거나 대상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자아와의 만남을 꿈꾼다. 갈등이기보다는 사물과의 화해를 시도하는 쪽이다. 다시 말하면 사물과의 갈등구조를 화해형식으로 풀어내고자 한다. 명은애 시인의 사색은 현실 밖에 있지 않고 현실 그 자체다. 생활 속에 있으며 늘 시인의 삶과 일치하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높은 상징이나 험란한 은유와 같은 시적 기교를 발휘하여 숨기지 않더라도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쉽게 다가온다. 이 작품에 사용된 이미지들은 소박하고 정겹다. 자신의 생각을 넓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감을 개성 있는 이미지로 보여준다. 독자들은 그렇게 보여주는 이미지를 통해 깊이 있는 세상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학 | 명은애 | 10,000원 | 128페이지 | 2021.4.20.

청옥문학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1길9
051-517-6068
sik620@hanmail.net

2010년 5월부터 문예지를 만들기 위해 시작하면서 꾸준히 성장해온 출판사입니다.

시집, 에세이, 문예지전문 출판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문단의 호응을 얻어 청옥 시인 선과 같은 시조선집도 출간합니다. 작가들의 저서가 독자들과 잘 만날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에도 힘쓰며 읽는 분의 마음을 따스하게 하는 좋은 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길 찾는 바람아

어디로 가야할지 갈 길을 찾는 마음이 바로 그 바람이다. 또 한밤중에 책상 앞에 앉아 결심을 해 본다. 이렇게 무작정 머무를 수는 없다면서 바람은 어딘가로 가야 한단다. 그 바람 따라서 나도 너도, 우리 모두는 가야만 한다. 그때까지 흔적을 남기면 기쁨을 만들어 가는 삶은 행복으로 바람의 길을 찾아 주리라는 결심을 하며 한 밤에 젖어 보련다.



문학 | 윤주동 | 12,000원 | 147페이지 | 2020.4.20.



석교시조문학17인

정격시조 선집을 3번째 내는 기쁨이 있다. 석교 장금철 시인의 뜻에 문학상이 만들어 지고 시조 발전을 위해 창작 강의와 더불어 시조 선집을 매년 만들어 내면서 정격시조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멋을 계승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고 있다.

문학 | 최경식 외 회원 | 15,000원 | 158페이지 | 2020.11.30.



수평선문학

수평선은 문학동인지로 울산에서 결성된 단체 회원들의 열정과 관심으로 발전하는 단체로, 책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책으로 발간된 창작물은 이 세상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진다 해도 영원히 나라는 이름으로 남겨져 후손들에게 좋은 우리말 향기를 전해 주는 꽃으로 남게 되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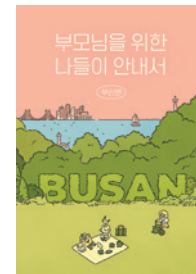
문학 | 서영철 외 회원 | 10,000원 | 164페이지 | 2020.11.28.

한국편의증진연구원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051-611-5060
koizikr@naver.com
www.koizi.kr

한국편의증진연구원은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디자인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내 집에서 끝까지’라는 슬로건으로 브랜드 ‘KOIZI’를 런칭하여,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콘텐츠는 물론 시니어 서비스 기업들과 소비자의 중개 플랫폼을 개방 중입니다. 고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에서 노후를 즐길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부모님 세대와 그들의 자녀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나들이 안내서(부산편)

부모님과 부산 여행을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작지만 소소한 도움이 되는 『부모님을 위한 나들이 안내서(부산편)』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가기 위한 여행책자는 많지만 성인인 자녀들이 나이든 부모님을 모시고 하는 여행 책자는 찾기 어렵다. 나이든 부모님과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 부모님과 자녀, 가깝고도 먼 사이지만 함께 즐기는 그 첫 번째 여행지 부산. 부산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기 좋은 여행지를 테마별로 엄선하여 소개한다.

인문교양 | 조현주 | 12,000원 | 106페이지 | 2021.3.19.



부모님을 위한 집수리 안내서

부모님과 더 오래, 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지혜를 공유하고 싶은 『부모님을 위한 집수리 안내서』 부모님이 건강하고 오래오래 집에서 사실 수 있도록 간단한 집수리 인테리어 팁을 전달한다. 시니어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실제 생활에서 큰 돈 들이지 않고도 간단하게 접목할 수 있는 팁을 선정했다. 사소한 것만 바꾸고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아도 집은 한층 더 안전해질 수 있다. 집 안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정보를 소개한다.

인문교양 | 조현주 | 8,000원 | 88페이지 | 2020.3.20.

해피북 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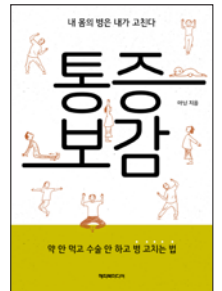
해피북미디어는 책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문화, 예술 분야를 주력으로 다양한 도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김창욱 음악평론가의 『청중의 발견』을 시작으로 강미희 무용가의 『일상의 몸과 소통하기』까지 여섯 권의 예술문화총서를 발간하고, 자연의 가치, 공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이야기 ‘만원의 행복’ 시리즈를 시작하였습니다.

해피북 미디어

부산광역시 동래구 우장춘로68번길 22
051-555-9684
mocalindoo426@naver.com

통증보감

아프면 병원 가고, 약 먹고, 수술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 누구나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과 생활습관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한다. 저자 아닌은 약물과 수술에 의존하지 않는 의료민주화야말로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운동이며 생명운동이라 말한다. 병원에 익숙해진 독자들이 『통증보감』으로 ‘몸의 주권’을 회복하길 바란다. 책은 운동 이야기, 음식 이야기, 밥과몸 운동법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마다 질병의 증상과 통증 부위에 따라 원인을 정리하고, 도움이 되는 운동을 정리해 실었다.



인문교양 | 아닌 | 16,000원 | 264페이지 | 2020.12.15.

윤리적 잡년

미국에서 20만 부가 판매된 화제의 스티디셀러로, 사랑과 성에 대한 열린 관계를 탐구하며 전통적인 일부일처제의 한계를 넘어 자유롭고 윤리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가이드를 제시한다. 저자는 일부일처제에 대한 신화를 불식시키고 자기 성찰과 솔직한 의사소통에서부터 안전한 섹스를 실천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이고 책임감 있는 다원적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다룬다. 개인과 그 파트너들은 경계를 논의하고 존중하며,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스스로 정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인문교양, 사회과학 | 재닛 하디, 도씨 이스턴(지은이) | 금경숙 박규환(옮긴이)
20,000원 | 446페이지 | 2020.5.29.



맥박

세상의 굴곡에도 좌절하지 않고 삶을 일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각박해진 세상에서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고난과 역경을 묵묵히 헤쳐나가는 인물들을 통해, 흔들리고 희미해지는 삶의 뿌리와 근원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야기의 배경은 줄곧 사현의 고향 시골이다. 친구들이 시골은 글렀다고 말해도, 사현은 자신을 길러주고 보듬어 준 고향에서 인생을 이어가고 싶어 한다. 이야기는 끊임없이 뛰는 '맥박'처럼 고향에서 피어난 이야기를 다시 고향에 뿌리면서, 우리의 원천을 되돌아보게 한다.

문학 | 정형남 | 16,000원 | 280페이지 | 2020.5.28.

호밀밭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94번길 24
070-7701-4675
homilbooks@naver.com
homilbooks.com



(주)호밀밭은 2008년 11월 12일 설립되어 2020년 현재까지 약 130여 종의 단행본을 기획·출판해 온 콘텐츠전문회사입니다. 인문사회, 문화예술 분야의 책을 중심으로 기획출판하고 있으며 그동안 펴낸 거의 모든 단행본이 다양한 기관의 우수도서 및 추천도서로 선정되어 기획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고 단단하게, 시대와 소통하는 가치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독자들과 유쾌한 소통과 성장의 경험을 공유하려 노력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중한 '무늬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길 희망합니다.

산은 살아있어

호밀밭 어린이 1권. 『입이 뚱꼬에게』로 비룡소 황금도깨비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작가는 환경의 날에 맞춰 펴내는 이번 그림책을 통해 환경과 생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한다. 생태계 파괴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까지 했던 지을 스님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창작한 이야기에 23점의 작품을 더한 이 그림책은 각 작품이 가진 거친 색감과 터치가 작가의 외침과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문학 | 박경호 | 15,000원 | 52페이지 | 2020.6.5.



오래된 불씨

호밀밭 소설선 '소설의 바다' 4권. 고금란 작가의 소설집이다. 모두 7개의 작품이 담겨있다. 대부분의 작품들에 평범하고 남루해 보일지 모를 노년의 평범한 일상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 속에는 인간으로서 생을 마주하고, 살아가고, 부딪히는 동안 발생한 작은 불꽃들이 녹아있다. 낯고 허름한 것에서부터 몽근하게 피어나는 향기처럼, 각 작품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어떤 윤곽을 더듬어보자.

문학 | 고금란 | 13,000원 | 252페이지 | 2020.7.20.



101가지 부산을 사랑하는 법

『101가지 부산을 사랑하는 법』은 아름다운 도시 부산의 속살과 참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가이드북이다. 단순히 먹고 즐기기 위한 정보제공을 넘어, 부산이라는 도시의 일상과 정서까지 담은 이 책은 우리에게 101가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부산하면 떠오르는 바다는 물론, 풍부한 먹거리와 축제, 우리 현대사의 여러 장면이 그대로 각인된 장소 등 사계절 내내 수많은 이야기로 출렁이는 부산은 몇몇 유명 관광지뿐만 말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도시다.

인문교양 | 김수우, 이승현, 송교성, 이정임 | 15,800원 344페이지 | 2020.7.20.



함께 부서질 그대가 있다면

『함께 부서질 그대가 있다면』은 제1회 문화다비평상 수상자인 박형준 교수의 첫 인문에세이이자 202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사업 선정작이다. 저자는 문학과 예술, 그리고 인문학이 우리 삶의 억압적 감성 구조를 변화시키는 실천적 방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한다. 다만 많은 이들이 문학을 잘 아는 것보다 '문학적인 삶'에 더 가까워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이며, 그간 연재한 글을 묶어 한 권의 책으로 펴낸다.

인문교양 | 박형준 | 13,800원 | 224페이지 2020.8.15.



밤이 아닌 산책

『밤이 아닌 산책』은 소설가 이미옥의 두 번째 단편소설집이다. 6편의 소설 속에는 모두 '빨'이 난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들의 빨은 표제작 '밤이 아닌 산책'에서처럼 직접적으로 이야기되기도 하고, 통증이나 결핍 등의 상처로 표현되기도 한다. 자신의 가장 내밀한 상처를 끌어안은 채 괴로워하는 소설 속 인물이 낯설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 각자의 '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일 것이다.

문학 | 이미옥 | 13,800원 | 228페이지 | 2020.9.16.



딸아이의 언어생활탐구

『딸아이의 언어생활탐구』의 저자는 일곱 살 딸아이를 둔 아빠이자, 지역에서 10년째 문화기획 관련 일을 해오고 있는 활동가다. 저자가 딸아이의 언어를 기록하기로 다짐한 이후, 아이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저자의 가슴에 좀 더 오랫동안 머무른다. 아이의 말은 때로는 멜로처럼 설렘고, 때로는 개그처럼 웃겼고, 때로는 드라마처럼 몽클했다. 마음 적시고, 꺄꺄 웃고, 위로받는 사이 저자는 자신이 한층 순해졌다고 고백한다.

문학 | 박진명 | 15,000원 | 232페이지 | 2020.10.9.



김쌤은 출장 중2(국문·영문)

지금은 세계적인 축제가 된 부산국제영화제. 1995년부터 그 시작을 함께 도모하고 준비한 이들은 김동호, 이용관, 박광수, 전양준, 오석근, 그리고 故 김지석 부산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 겸 수석 프로그래머였다. 2019년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처음 출간된 『김쌤은 출장 중』에 이어 시리즈의 두 번째로 출간된 이 책에는, 故 김지석 수석프로그래머가 세계 각국의 영화제를 다니며 목격한 정황, 그 과정에서 느낀 고민과 성찰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문학 | 김지석 | 15,000원 | 268페이지 | 2020.10.16.



나의 다정하고 씩씩한 책장

소설가 오선영이 몇 해 동안 꾸준히 써온 문학 칼럼들을 모은 책이다. 흔히 소설가라고 하면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소설가 오선영은 자신의 글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의 글을 좋아하고, 궁금해하고, 또 읽고자 하는 열렬한 독자이기도 하다. 『나의 다정하고 씩씩한 책장』에는 그녀가 읽어온 책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낸 감상과 사유가 담겨있다.

문학 | 오선영 | 12,000원 | 180페이지 | 2020.11.4.



먼구름 한형석

『먼구름 한형석』은 일제강점기에 나고 자라셨기 때문에 혹독한 시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지만, 그 속에서도 곳곳이 자신의 길을 걸었던 예술가 한형석 선생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한형석 선생님은 일제 강점기에는 중국, 해방 후에는 부산에서 주로 활동하셨던 까닭에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다. 역사에 존재하는 틈과 공백을 보완하여, 그가 살았던 시간이 보다 입체적이고 풍성하게 부풀어 오를 수 있도록 했다.

문학 | 정재운 | 12,800원 | 168페이지 | 2020.11.5.

오늘도 만나는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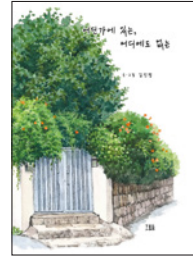
모두가 찬란한 성공 스토리를 이어가는 지금, 『오늘도 만나는 중입니다』는 30대에 진입한 어느 청년의 찌질한 일상을 보여준다. 저자는 지난 순간의 모든 것이 글감이자 영감이며, 충분한 양분이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동안 ‘불안’을 거추장스러운 감정,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감정이라 여겼지만, 커뮤니티로 만난 모든 이가 ‘각자의 삶을 좇으며 사소한 불안’을 안고 있었다고 저자는 고백한다.



문학 | 우동준 | 13,800원 | 216페이지 | 2020.11.12.

어딘가에 있는, 어디에도 없는

『어딘가에 있는, 어디에도 없는』은 미술작가 김민정이 부산의 재개발 예정 지역 풍경을 리서치하고, 사라지는 도시 풍경을 수채화로 기록한 책이다. 독립 출판을 통해 선보인 『도시 속의 섬』(2017)과 『사라지는 집』(2019)을 이번 작업에 함께 엮었다. 김민정 작가의 그림들은 사라진 집과 마을들에 대한 기록이자 기억으로 작동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회색빛의 균일한 세계가 무엇을 지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문학 | 김민정 | 16,000원 | 128페이지 | 2020.11.16.



도비문답

동양의 애덤 스미스라 불리는 이시다 바이간(石田梅岩)은 “생각 있는 기업가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석문심학’을 창설한 장본인”이다. 그가 1739년 출판한 『도비문답』은 이후 3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본 기업인들의 경전’이라 불릴 만큼 많은 기업인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지금은 흔히 듣게 되는 ‘고객만족’, ‘품질관리’, ‘사회공헌’ 등이 이미 이시다 바이간이 이 책에서 일찍이 주창했던 가치이다.

인문교양 | 이시다 바이간 | 류영진 옮김 | 18,000원 | 344페이지 | 2020.11.14.



교복 위에 작업복을 입었다

『교복 위에 작업복을 입었다』는 현장실습생/청년노동자 당사자의 진솔한 목소리를 담은 최초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담담한 시선으로 그려내며, 자신과 주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현장실습생/청년노동자가 겪는 다양한 일들을 그야말로 생생하게 들려준다. 저자는 날 것 그대로의 이야기를 차분하고 정갈한 문장으로, 어떤 면에서는 역설적인 담담함으로 전달한다.

문학 | 허태준 | 14,000원 | 272페이지 | 2020.11.22.

휴먼 - 아크무크지 Vol.1

창간호의 주제는 ‘휴먼’이다. 인문학의 출발이랄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성찰로 아크의 긴 여정을 출발하고자 했다. 인간이라는 우리말에 적당한 거리를 두어 새롭게 환기하고자 영어 단어 휴먼을 주제로 삼았고 이에 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통찰을 담았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내용을 지향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아름답고 정의롭고 바람직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박하게 풀어내려 노력했다.



인문교양 | 휴먼 편집부 | 16,000원 | 324페이지 | 2020.12.15.

우리는 좀 뽀족한 사람들이야

송국클럽하우스는 1996년 부산 최초로 개소한 정신재활시설로,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 교육,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좀 뽀족한 사람들이야』는 송국클럽하우스의 회원 김승덕 씨가 김군이라는 필명으로 그린 일상툰을 모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정신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고, 정신장애를 겪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변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문학 | 김군, 송국클럽하우스 | 15,000원 | 172페이지 | 2020.12.22.

바오바브나무의 선물

마다가스카르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어린 왕자’ 이야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몽골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지내다가 아프리카 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지내고 있는 ‘글로벌 보이’ 온유. 아홉 살 온유가 바라는 것은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다. 그런 온유의 마음을 알아차린 아버지는 여우원숭이와 바오바브나무를 만나고 새롭게 다닐 학교도 구경하러 여행을 떠나자고 한다.



문학 | 김영호 | 13,800원 | 88페이지 | 2020.12.24.

이수현, 1월의 햇살

일본 유학 중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 사단법인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가 의인 이수현의 20주기를 맞아 그 삶을 기록한 평전을 기획했고, 생전 그와 함께 밴드 활동을 하며 인연을 맺은 작가 장현정이 1년에 걸친 자료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책을 집필했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발간된 이 책에 담긴 이수현의 건강하고도 당당한 삶은,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큰 울림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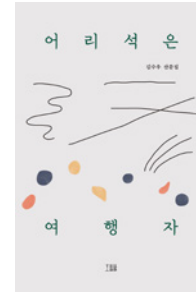
문학 | 장현정 |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기획 | 15,000원 | 288페이지 | 2021.1.26.



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

법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당연히 우리가 자주 접하는 드라마, 영화, 공연, 전시 등 각종 문화예술 콘텐츠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에도 무수히 많은 법이 녹아있다. 『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은 우리가 접하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하고 시시콜콜한 법적 궁금증을 다룬다. 32가지 흥미로운 주제를 그저 가볍게 다루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변호사의 시선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담아냈다.

인문교양 | 백세희 | 15,000원 | 296페이지 | 202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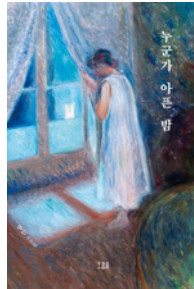
어리석은 여행자

『어리석은 여행자』는 경쟁과 소비로 점철되고 자본을 축재하는 데에만 골몰하는 현시대를 비판적으로 응시하며 그 반대 방향의 삶을 모색한다. 저자는 타자를 환대하고 자연과 함께 거하는 천천한 삶을 제안한다. 더하기보다 빼기에 가까운 모습을 한 이러한 삶은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로 연결된다. 어리석음이 품은 웅숭깊은 크기만큼이나 책 속에는 인문학·철학·문학적 사유가 가득하다.

문학 | 김수우 | 14,000원 | 260페이지 | 2021.4.10.

누군가 아픈 밤

『누군가 아픈 밤』은 소설가 정인의 첫 번째 단편소설집이다. 수록된 소설 여기저기에는 뼈저덕대는 가족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아픈 가족들을 보살펴야 하는 데서 인물들은 부담을 느끼고(「누군가 아픈 밤」, 「소리의 함정」, 「아무 곳에도 없는」), 살을 부대끼며 살지만 남보다 못하거나 서먹한 가족들(「이식(移植)의 시간」, 「꽃 중에 꽃」)이 즐비하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삶이 깃들었던 집은 활활 불타오르고 끝내 사라져버린다.



문학 | 정인 | 14,000원 | 260페이지 | 2021.3.12.



꿈꾸는 유령 방과후강사 이야기

『꿈꾸는 유령 방과후강사 이야기』는 방과후교육이 시작되고 지난 26년간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방과후강사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담은 최초의 책이다.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위원장이기도 한 저자는 농성, 집회, 기자회견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지난 2020년 한 해, 일요일이나 공휴일, 명절 연휴에 틈틈이 글을 썼고 더 나아가 추운 겨울 농성장에서 휴대폰으로 푹푹 눌러 쓰며 50여 편의 글을 완성했다.

문학 | 김경희 | 13,800원 | 240페이지 | 2021.4.10.

21세기 여성



부산광역시 수영구 무학로49번길103
051-753-5286
femme21c@naver.com
www.facebook.com/femme21c/
인스타그램 : @21c_woman

2019년 4월, 1인 출판사로 오픈한 21세기 여성 출판사는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여성과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주제로 담아내고자 합니다. 부산 책실험실 BLab을 통해 『까미노 바이러스- 어느 날, 순례자가 되다』의 첫 책을 통해 시작한 출판 활동은 다양한 주제, 경험 많은 저자들의 활동을 책이라는 형태로 세상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글다듬기의 기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생각과 지식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글쓰기다. 그런데 글을 쓸 때나 쓰고 난 후 자기 글을 어떻게 다듬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이 많다. 이 책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국어 지식이 없는데 내 글을 다듬을 수 있을까? 내가 쓴 문장이 잘 읽히지 않고 어딘가 어색한데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쓴 표현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이러한 생각을 해 본 분들이 글다듬기의 기술을 최대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쓴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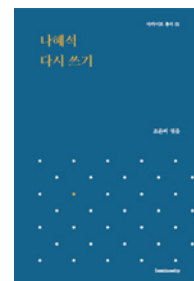
인문교양 | 김혜원 | 12,000원 | 168페이지 | 2020.9.23.

Luminosity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59
051-909-2046
jokyum@gmail.com
blog.naver.com/lumiacv

Luminosity는 가치 있는 글을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정보전달의 매체가 변해도 언제나 변하지 않는 가치는 책으로 전달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아카이브 총서 나혜석 다시 쓰기를 시작으로 오영재 연구가 발간 예정입니다.



나혜석 다시 쓰기

아카이브 총서 『나혜석 다시 쓰기』는 예술가로서의 나혜석을 발굴하고자 한다. 화가이자 사상가이며 독립운동가인 나혜석은 진보적인 견해를 예술로 표현하였다. PART 1에서는 창작음악극 <나혜석>을 다루고, PART 2에서는 조은비의 크고 작은 아티클레이션, 김소연 연극평론가의 사건을 걷어내고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신양희 큐레이터의 나혜석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임명선 문학평론가의 플라뇌즈 나혜석:궤도 바깥을 향한 여정과 뺨어 나가는 연결들을 통해 나혜석 다시 쓰기로 구성한다.

인문교양 | 조은비 엮음 | 20,000원 | 182페이지 | 2021.3.19.

글이	그래봤자 꿀랑 어른	한주형	8P
	하지만, 그렇다 해도, 말하자면 도저히	우연	9P
	낙락한 생	구연미	9P
도서출판 신생	역풍에 정점을 찍다	김용태	13P
	아동문학의 근원	황선열	14P
	덧돌에 앉아서	남선현	15P
	현대시의 문화 읽기	박경수	15P
	명랑을 오래 사귀 오늘날은	정안나	16P
도서출판 전망	희망공화국	남기태	17P
	아버지처럼 나도 내 아들에게	백영현, 백이든	18P
	그때와 지금	류현옥	18P
	세 번 결혼한 여자	우아지	19P
	흔적	전홍준	19P
	엄마는 멍을 꽃이라 했다	김명수	20P
	위대한 사기	문성수	21P
	반려바다	백년어서원	21P
	너에게 이 문장을 빌려주고 싶어	장은연	22P
	남극해	이윤길	22P
	다시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드레문학회	23P
	내 안의 사각지대	정문숙	23P
	어머니 손톱을 깎아드릴게요	양영진	24P
	지리산에 바람이 분다	이인규	24P
	따뜻한 유물	이순남	25P
	낙타의 편지	조의홍	25P
	포옹(개정판)	나여경	26P

	풀밭에 버려진 감자처럼	강성은 외	27P
도서출판 한국인	다대포를 구슬피 떠도는 임란진혼곡	김영찬	28P
	나이아 가라	윤평원	29P
도서출판 해성	1951, 소년만화가열전	박기준, 안지혜	30P
	달빛 타는 우륵	소민호	31P
	애들이 선생님 오셨다	김문홍	33P
두두	시네마 리바이벌	조재휘	39P
	사랑의 미메시스	정훈	40P
	무학대사전	장유정(웁긴이)	40P
물음책방	산티아고에서 온 편지	강진숙, 이산들	41P
빨간집	기록하는 여자들, 첫 번째-나의 코로나19	강미미 외	45P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	조지영	45P
산지니	콜트45	정광모	46P
	보존과 창조	구모룡	47P
	걸어서 들판을 가로지르다	박향	48P
	오전을 사는 이에게 오후도 미래다	이국환	48P
	봄밤을 거슬러	정미형	50P
	캐리어 끌기	조화진	51P
	고인돌에서 인공지능까지	김석환	52P
	타고르의 문학과 사상 그리고 혁명성	박정선	53P
	나도 나에게 타인이다	소진기	55P
	소요-You	오월의 수채화	양재성
	무등산 등에 업혀	박홍원	59P
시와사상사	꽃똥	최선희	60P
	고래가 왔다	감정말	62P
	기린을 기다리는 해변	안효희 외	62P
작가마을	사랑하다가 기다리다가	김희영	62P

	달빛 그을음	김삼문	63P
	행복 에스프리	이항영	63P
	바람개비	류선희	64P
	석류의 후속	정말심	64P
	애인이 생겼다	문인선	65P
	빠용77	정진욱 외	65P
	빛, sns를 전송하다	김새록	66P
	내 안의 만다라	손애라	66P
	그 여름 별자리를 만나다	박숙자	67P
	그리운 것에는 이유가 있다	이금숙	67P
	한국현대시와 토포필리아	양왕용	68P
	외로운 새로움	강준철	68P
	우물 속에서 뜨는 달	이나열	69P
	새	이문영	69P
	파도가 길을 찾다	우지아	70P
	바질토마토	정가을	70P
	바다, 그 너머 하늘 끝	조영희	71P
책펴냄열린시	빛으로 온 아가	해연	72P
	낮선 정거장에서 파도 읽기	김수연	73P
	얼굴을 읽다	박용찬	73P
	꿈꾸는 풍선 인형	노장현	74P
	파색조	홍영지	74P
	미로역에서	조현숙	75P
	고요를 읽어내다	그림나무	75P
	난분분 바람	김원용	76P
	본질에 빠지다	명은애	76P
청옥문학사	길 찾는 바람아	윤주동	77P

	석교시조문학17인	최경식 외	78P
	수평선문학	서영철 외	78P
해피북미디어	맥박	정형남	82P
호밀밭	산은 살아있어	박경효	83P
	오래된 불씨	고금란	84P
	밤이 아닌 산책	이미옥	85P
	떨아이의 언어생활탐구	박진명	86P
	김쌤은 출장 중2(국문·영문)	김지석	86P
	나의 다정하고 씩씩한 책장	오선영	87P
	먼구름 한형석	정재운	87P
	오늘도 만나는 중입니다	우동준	88P
	어딘가에 있는, 어디에도 없는	김민정	89P
	교복 위에 작업복을 입었다	허태준	89P
	우리는 좀 뽀족한 사람들이야	김군, 송국클럽하우스	90P
	바오바브나무의 선물	김영호	91P
	이수현, 1월의 햇살	장현정, 부산한일문화 교류협회(기획)	91P
	누군가 아픈 밤	정인	92P
	어리석은 여행자	김수우	93P
	꿈꾸는 유령 방과후강사 이야기	김경희	93P

인문교양

도서출판 너나드리	통일의 눈으로 서울을 다시보다: 정동 광화문 편(국문, 영문)	강동완 외	10P
	동서독 접경 1,393km, 그뤼네스 반트를 종주하다	강동완 외	11P
	평양 882.6km	강동완	11P
	통일의 눈으로 백령도를 다시보다	강동완	12P
도서출판 신생	이미지와 코드로 풀어보는 영화 이야기	권택우	14P
	플랫폼 리터러시와 액체의 시간	권유리아	16P
도서출판 전망	카리브해의 누에, 쿠바	김득진	20P
	작가의 드론 독서3	정광모	26P
도서출판 해성	2000년 가야불교 뿌리를 찾아서	심재훈	31P
	꿈을 짓는 사람들	윤현주	34P
도서출판3	바람결에 새겨진 중국역사	자오지엔민	35P
	제임스 레계의 맹자 역주(1~3권)	제임스 레계	36P
	유래를 품은 한자(1~7권)	허진웅	36P
	갑골문 고급자전	허진웅	37P
	키워드한자: 24개 한자로 읽는 동양문화(상, 하)	하영삼	37P
	문화번역과 주디스 버틀러의 이론적 프레임	정혜욱	38P
	군서치요: 세상을 다스리는 360가지 원칙	중화문화교육센터	38P
물음책방	사람을 읽다 사람을 잇다	귀를 기울이면 아이들 저 김성현 외 엮음	42P
블릭	와인단상: 와인에 관한 짧은 생각 모음집	변정환	43P
산지니	한형석 평전	장경준	49P
	망각된 역사, 왜곡된 기억 '조선인 위안부'	최은수	49P
	좋은 문장을 쓰고 싶다면	이진원	50P
	동북아 바다, 인문학으로 향해하다	서광덕 외	54P
	내러티브와 장르	닉 레이시	56P

한국편의 증진연구원	부모님을 위한 나들이 안내서(부산편)	조현주	79P
	부모님을 위한 집수리 안내서	조현주	80P
해피북미디어	통증보감	아닌	81P
	윤리적 잡년	재닛 하디, 도씨 이스턴	82P
호밀밭	101가지 부산을 사랑하는 법	김수우 외	84P
	함께 부서질 그대가 있다면	박형준	85P
	도비문답	이시다 바이간	88P
	휴먼 - 아크무크지 Vol.1	휴먼 편집부	90P
	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	백세희	92P
21세기 여성출판사	글다듬기의 기술	김혜원	94P
Luminosity	나혜석 다시 쓰기	조은비 엮음	95P

사회과학

도서출판 너나드리	통일의 눈으로 서울을 다시보다: 정동 광화문 편(국문, 영문)	강동완 외	10P
	동서독 접경 1,393km, 그뤼네스 반트를 종주하다	강동완 외	11P
	평양 882.6km	강동완	11P
	통일의 눈으로 백령도를 다시보다	강동완	12P
빨간집	커뮤니티 아카이브 만들기:센다이미디어테크 3월 11일을 잊지 않기 위하여 센터 분투기	사토 토모히사 외	44P
산지니	약속과 예측	동아대학교 젠더·어펙트연구소	47P
	완월동 여자들	정경숙	52P
	(한 권으로 읽는) 마르크스와 자본론	사사키 류지	53P
	빅브라더에 맞서는 중국 여성들	리타 훙 핀처	54P

전태일에서 노회찬까지	이창우	55P
헌법과 정치	카를 슈미트	56P
현대 타이베이와 탄생	수취빈	57P
해피북미디어 윤리적 잡년	재닛 하디, 도씨 이스턴	82P

유·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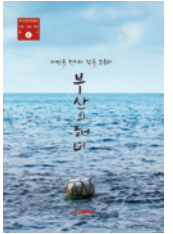
도서출판 해성	밀밭너머나비를찾아	임신행	32P
	초록이태어난날	공재동	32P
	신발의수다	오선자	33P
산지니	반려인간(꿈꾸는 보라매 13)	신진 글, 권문경 그림	51P

부산문화재단 출판시리즈

<부산문화재단 사람·기술·문화 총서>

부산문화재단은 2015년부터 부산문화를 나타내는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부산다움에 대한 가치를 발굴하고 문화로 소통하기 위해 <부산문화재단 사람·기술·문화 총서> 시리즈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가치 있는 문화콘텐츠를 발굴하는 작업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문의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051-745-7224



<B·ART·E 총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기획한 문화예술교육 총서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은 인간의 존엄을 지향하는 행동하는 인문입니다. 오늘날 문화예술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들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하고 받쳐주는 고리처럼 서로 이어져 있음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현장에 주목하며 우리 문화예술교육 담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문의 부산문화재단 문화교육팀 051-745-7283



발행처 (재)부산문화재단
발행인 강동수
기획 (재)부산문화재단 문화교육팀
주소 (4854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
전화 051-745-7283
홈페이지 www.bscf.or.kr / bsarte.bscf.or.kr
발행 2021.6.
등록 (재)부산문화재단 2021-008

이 책자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 내용 등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글이	물음책방	청옥문학사
도서출판 너나드리	블릭	한국편의증진연구원
도서출판 신생	빨간집	해피북미디어
도서출판 전망	산지니	호밀밭
도서출판 한국인	소요-You	21세기 여성
도서출판 해성	시와사상사	Liminosity
도서출판 3	작가마을	
두두	책퍼냄열린시	